



1973년 후지카 대원전기 입사
 1976년 프레스공으로 작업중 왼손 엄지를 제외한 4손가락이 잘리는 산재를 당함. 당시 4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을 뿐이며 이후 수위로 근무
 1988년 3월 10일의문의 죽음을 당함

◎ 동지의 삶과 죽음

오범근 동지는 산재 이후 호봉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야간 경비근무 중 옥상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떨어져 골수염으로 무릎뼈를 깎는 수술을 하는 등 노동력을 상실하였으며,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자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부인 또한 생활비를 보태려고 대원전기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다 결핵에 걸리는 등 어려움이 겹쳤지만 항상 웃음과 자상함을 잃지 않았으며 극진한 효성으로 주위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이웃과 동료들은 말한다.

◎ 사건경위 및 의문점

3월7일 "사적강요, 해고 위협, 어용노조 물러가라", "25% 임금인상, 학자금, 가족수당 쟁취하자"는 요구를 내걸고 파업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구사대의 잔인한 폭력으로 해산되자 10일 새벽 회사로 출근해 같이 근무하는 수위들을 만나 폭력해산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회사측의 호출을 받고, 항의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4층 관리자실로 올라갔다가 음독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파업농성에 적극적으로 지지표명을 해온 오범근 동지는 의문의 죽음으로 이날 10시20분경에 사망했다.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에서 밝힌 오범근 동지의 자살에 대한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1) 유서가 없다. 자살을 사전에 생각했다라면 유서를 남기기 마련이다.

2) 성실하고 깨끗하던 생활태도를 볼 때 자살할 만큼 의지가 약하지 않다.

3) 사망 당일도 구사대의 파업농성 파괴에 분노하면서 회사측의 호출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으면서, 다녀 온다고 하며 올라갔다고 한다. 그런 그가 왜 대책회의 중인 전무이사실에서 음독했겠는가.

4) 회사 측은 오범근동지가 평소에도 자살하려고 독극물을 갖고 다녔다고 하지만 한번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 시기가 지나면 독극물 등을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5) 오범근 동지가 술에 취한 채 쓰러진 것을 병원에 옮겼으나 곧 사망했다는 경찰의 허위보고가 사망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증거이다.

3월 20일 새벽 5시 30분 오범근동지의 시신은 400여명의 전경이 겹겹이 에워싼 가운데 병원에서 고향으로 옮겨졌다.



1960년 서울 출생
 1976년 9월 서울 장충중학교 졸업. 잉글랜드사, 에펠사, 시엔나사 입사
 1988년 2월 26일 고려 피혁 노조위원장 선출
 1988년 4월 24일 해고 징계에 맞서 작업거부 철야농성
 1988년 4월 25일 관리자들과 몸싸움 중 분신
 1988년 4월 30일 한강성심병원에서 1시경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고려피혁 성남공장은 200여 노동자가 슈발리에 구두를 생산하는 대우계열 중소기업으로 고려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더 이상 자본가의 노예일 수 없다고 생각한 최윤범 동지를 중심으로 민주노조가 건설됐다. 그러나 본조의 공작에 의해 성남공장은 지부가 되었고, 지부장 선거과정에서 회사측과 어용노조측에 의해 민주노조측이 패배하자 회사는 민주노조에 대해 탄압을 시작했다.

부서이동과 해고, 이에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가자 회사측과 어용노조측은 민주노조측을 회사밖으로 밀어냈고 민주노조측은 회사밖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3일째 노동부가 중재를 한담시고 회사측과 협상에 들어갔으나 회사측은 그사이 물품을 빼돌리려 했고, 이에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동지는 온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 산화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름이와 다운이의 아با이고 다운이 엄마의 남편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던 젊고 미남인 아저씨였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고 자기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시며 운동을 좋아하셨다. 최윤범동지는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처음 태동부터 많은 애를 써오셨다. 그러나 같은 동료인 2명이 배신을 하여 민주노조 만드

는 일을 패배로 돌리고 말았다.

최윤범 동지는 모든 힘든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하려고 모든 일을 책임감있게 해왔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르기 쉬운 웃음을 잃지말고 항상 재미있게 생각을 하라고 하셨다. 최윤범 동지는 조합원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 관리자와 싸워야 하고 어용노조측 위원장과 싸워야 한다고 하셨다. 단결된 힘만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하셨다.

분향소에 들어가 아저씨의 사진을 보고 있자면 지금도 우리의 옆에 살아서 우리에게 장난을 걸고 웃으시며 우리들을 재미있게 해주시는 것 같다. 사진을 보기가 지금은 너무나도 힘이 든다. 최윤범 동지의 모든 행동 하나 하나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 유고글

【동지의 말】

최윤범 동지와 나는 병상대화(녹취)

김해성목사 : 불을 누가 당겼어요?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최윤범 동지 : 누가 당겼는지는 못봤어요. 뒤에서 불어왔어요.

김 :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최 : 노조측 사람들은 뒤에 없었어요. 회사측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김 : 그런데 불이 뒤에서 붙었습니까?

최 : 네.

김 :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최 : 화가 나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그래놓고 협상에 들어갔는데 저희 민주노조를 위한 그 사람들을 완전히 길바닥으로 내팽개치고, 그리고 회사 물건을 빼돌리면서, 그 만행을 보고 제가 협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협상을 빨리 보고 얼른 끝내기 위해서 제몸에 제가 신나를 뿌렸어요.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김 : 어디로요?

최 : 사무실쪽으로요.

김 : 혼자 갔어요?

최 : 저 혼자 갔는데 따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렸어요. 저를. 그래서 저도 옆에서 있었습니니다. 그냥 서 있었는데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서 협상을 하자,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협상을 할려고 하는 순간에 불이 당겨졌어요.

김 : 거기에는 회사측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최 : 네. (비명) 아! 아이 아피요.

의사 : 90% 화상이요.

김 : 몇 도?

의사 : 3도 2도 섞여 있습니다. 아주 중태예요.

가벼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중입니다.

김 : 지난번 분신했던 경원대학교 송광열열사, 그런 분들도 제가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힘을 좀 내시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투쟁의지를 북돋울 수 있고 하니깐, 열심히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최 : 네.

◎ 추모글

[시]

이 식인종들아, 흉혈귀에 개만도 못한 놈들아!
이제 돈도 노조도 다 소용없다.
우리 최윤범 형제를 살려내라.
살려내라, 살려내라, 살려내라.
산다는 것이 무섭기만 하다.
이런 세상에서는 정말 살기 싫다.
형제들이 얼마나 더 죽어가야 하고
언제까지 노예처럼 착취당할 것이냐
보아라, 이제 우리가 일어선다.
일꾼들의 억센 어깨를 걸고 함께 나아간다.

이 땅의 모든 어용과 독재와

악덕자본가를 응징하고 우리들의 손으로

법과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세상,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해방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대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최윤범 형제를 두 번 죽이지 말라.

처절하게 아름답고 깨끗한 동지의 넋을

다시는 더럽힐 수 없다.

최윤범을 살려내라!

장용훈 (당시 29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열사 묘역



- 1959년 전남 승주군 월등면 출생
- 1987년 전남 순천시 현대교통 택시운수회사에 입사
순천시 인제동 사글세방에서 부인과 1남 1녀와 함께 생활
- 1988년 5월 24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여 분신
- 1988년 5월 30일 전남대 병원에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현대교통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 대변하는데 앞장서오던 장용훈 동지는 88년 2월28일 자전거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자비로 합의, 해결하였다. 이 일을 빌미로 3월5일 과장은 장용훈 동지에게 불리한 경위서를 강요했고, 동지가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승무 정지시키고 집단폭행하였다.

장용훈 동지는 원통한 마음으로 검찰과 노동부에 고소와 탄원을 했으나 이들은 합의만을 종용한 채 방관했다. 회사측은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노사협의회도 거치지 않고 부당해고를 통지했다. 동지는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여수 노동부를 비롯해 서울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절처만을 따지면서 무성의로 일관할 뿐이었다. 결국 88년 5월24일 장용훈 동지는 회사 사무실에서 몸에 신나를 끼얹고 "뒤를 잘 부탁한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가정은 파괴당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지 모르겠다. 이놈의 세상 비통해서 살 수 없다"라고 외친 후 산화해 갔다.

◎ 동지를 생각하며

한달에 20일 이상, 하루에 절반씩 뺏김이 쑤시게 일해서 고작해야 수당 다 합쳐서 한달 월급 30여만원으로 처와 두 자녀를 먹여 살리며 성실히 일해왔던 노동자를 경미한 접촉사고를 구실로 회사측 눈에 벗어났다고하여 초안까지 잡아주며 불리한 경위서를 강요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비조합원을 사주하여 집단폭행까지 가한 회사측의 소행을 보라!

더군다나 노사합의에 의해 조건없는 복직을 약속해 놓고 돌연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조치한 사실은 평소 노동자를 돈벌이 기계로만 간주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장용훈 기사의 분신은 하루 아침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 평소에 회사측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위해, 조합원이 사고를 낼 경우 배차정지통 가하고, 출근이 약간 늦게 되면 3일동안 배차정지처분을 내렸고 택시보유수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여 조합원에게는 결핍하면 승무정지등 불이익한 처분을 내렸다. 그런가 하면 비조합원에게는 사고를 내도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음은 물론 온갖 혜택을 주어왔다.

생계의 터전을 비참하게 빼앗기고, 믿었던 노동부에 서마저 냉대받은 힘없는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였겠는가! 그것은 죽음이었다.

자신의 몸을 불살라 다시는 이땅에 두 번 다시 자신과 같은 비참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죽음으로써 항거하는 길이었다.

장용훈 노동투사의 분신은 현대교통 전 근로자의 외침이요, 이땅의 억압당하는 천만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사천만 애국 국민의 외침이다.

◎ 유고글

【유언】

"회사에 대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회사측의 횡포로 집단폭행 당시 비조합원 3~4명이 있었으며, 시민 택시 조합원 1명, 회사조합원 1명이 이를 말했다. 그때 당 한 폭행으로 치료비 170만원의 빚더미를 짊어진 채 하소연 할 길이 없어 사장, 상무, 과장 이영세의 폭행에 분하고 원 통해서 고소를 하였다"고 말하며 동료에게 "여러분이 잘해 라! 기죽지 말아라", "내가 놀고 있을 때 나에게 짜장면 몇 그릇 사준 사람도 있었다. 고맙다" 회사는 1만원도 안해주 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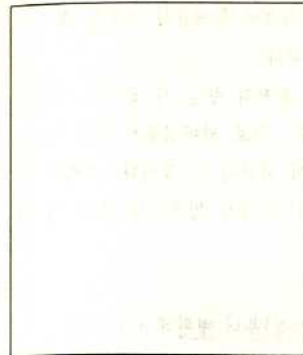
"나를 위해 조합장 이하 조합원들이 데모를 하는 것 으로 알고 있다. 고생이 많은 줄 잘안다"고 말하였으며, 동 생에게 "형노릇 못해 미안하고 어머니께 불효해서 미안하 다"며 "어머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장, 상무, 이영세 과장은 나앞에 와서 무릎꿇고 사죄하면 조금은 용서해 주겠다"며 "관계된 사람들과 힘모 아 밀어 붙여 꼭 복수를 해야 한다" "잘 살아 선의의 복수 를 꼭 해주라!"며 부인에게 "소원이가 보고싶다 사는데 애 로점이 있더라도 잘해달라"며 마지막 유언처럼 병상에서 한 말이다.

문 용 섭

墓

1986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망우리 광무택시 입사
1988년 6월 9일 구사대의 폭행으로 운명



◎ 사건경위

가난해도 의리의 사나이

1988년 6월6일 서울 동대문구 망우동 소재 광무택 시(사장:노명재) 운전기사 문용섭 동지가 회사측의 구사대 인 신세일에게 맞아 동부 제일병원에 입원 중 6월9일 숨졌 다.

문용섭 동지는 구리시 교문리에서 부인과 3자녀(1 남 2녀)와 함께 보증금 20만원짜리 월세방에서 가난하게 살아 왔으면서도 몸이 아파 생계가 어려운 친구를 위해 집 에 있는 쌀을 전부 퍼다가 주고, 동지는 가족과 함께 빵으 로 끼니를 때우는 등 의롭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또 한 평소 의협심이 강하고 직선적인 성격으로 회사 관리자 들에게 바른 말을 잘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모든 일을 책 임지고 동료들에게는 부담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 회사 노용복 부장과 노용운 과장 등이 힘없는 기사들에 게 각종 구실로 돈을 뜯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이러한 사 실을 낱알이 자신의 수첩에 기록하여 폭로함으로써 회사의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벌러 왔다.

광무택시는 사장 노명재의 조카들인 노용복 관리부 장, 노용운 관리과장 등이 함께 운영하는 전형적인 족벌체 제이다. 관리부장 노용복은 때로 문용섭 동지와 같이 당당 하게 따지고 대드는 기사들을 힘으로 누르기 위해 관리과 장 노용운의 소개로 정경, 신세일, 김문기 등을 입사시켜

의도적으로 회사파 기사로 키워왔다. 그리하여 1988년 5월 7일 서울지역 택시총과업 당시에는 정경, 신세일 등 입사 2개월도 안된 신입 기사들이 회사 업무용 차량을 동원(일 반 기사들은 빌려 타기가 대단히 어렵다)하여 파업에 동참 하자던 고참 운전기사들에게 '망우리 뒷산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며 차에 탈 것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은근한 위협을 가하였다. 또한 '노부장에게 대드는 놈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협박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광패같은 회사파 기사를 구사대로 키워 기사들을 꼼짝 못하게 억압해 왔다.

노용복 관리부장과 노용운 관리과장은 스페어 기사 들에게 돈을 걷어오게 하고 사고처리 하면서 돈받아 먹고, 생일날 축의금을 갖다 바치게 하고 이사 비용 모자란다고 돈건어 오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사들을 갈취해 왔다. 이들은 사장이 삼촌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기사들을 아 부하게 만들고, 그 위에 군림하여 기사들로부터 양주roman 술을 얻어 먹는 파렴치하고 관리능력이 전혀 없이 봉건적 권위만을 내세웠던 자들이다. 문용섭 동지는 바로 이러한 비리를 그때 그때 수첩에 기록하여 폭로하겠다고 했으니 노용복 부장이나 노용운 과장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사건이 발생한 6월6일 오후 근무조였던 문용섭 동 지는 일을 나가지 않고, 1,000원을 입금으로 잡아놓고 노 용운 과장에게 '노부장파 회사의 비리를 밝힐 수 있게 2주

일간의 휴가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편 이날 정경, 신세일과 함께 자기집 이사를 하던 노부장은 노과장에 가서 연락을 받고 러흥지등 회사로 달려와서 포장마차에서 회사 비리와 문 동지를 해고시킨다는 소문 문제로 문용섭 동지와 말다툼을 벌였다. 노부장이 포장마차에서 나간 뒤 같이 있던 정경과 신세일이 문 동지에게 '자꾸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면 수범업체가 되지 않는다.'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때 포장마차 안에는 신세일, 정경, 정승철(기사), 포장마차 아주머니 2명이 있었다고 한다.

말다툼이 시작되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신세일이 담배로 문 동지의 얼굴(코옆)을 지졌다. 이에 문 동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신세일에게 접근하자 신세일이 가격을 하여 문 동지가 포장마차의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붙잡았다가 뒤로 쓰러지면서 포장마차 문 밖 보도로 쓰러져 뒷머리를 보도에 부딪혀 실신하였다.

이상은 신세일, 정승철의 증언이며 정경 자신은 테이블을 앞에선 사이에서도 술마시기에 바빠 보지 못하였다고 위증하였으며 포장마차 아주머니는 고기를 굽느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이후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

◎ 의문점

유가족들과 사건대책위에서 제기한 의문점을 보면 첫째, 평소 깨끗하게 가사들 편에서 생활해왔기에 회사측은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으며, 노부장의 비리에 매우 분개하여 둘 사이가 무척 나빴으며, 사건 당일 갖고 있던 비리를 적은 수첩이 없어졌고, 노부장 노과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신세일(당시 구속중)과 정경(사건이후 회사 출근 안함)은 폭력 전과자들로서 한때 같이 복역하기도 했으며, 회사측이 노조를 폭력적으로 탄압키 위해 고용한 자들이라는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다는 점.

둘째, 사건 현장인 실내포장마차는 문높이가 160cm가량이며 문용섭 동지가 신세일에게 접근 하기 위하여는 천정에 단 판자 때문에 반드시 고개를 숙이며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문밖으로 나가 쓰러진다 해도 엉덩이가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지의 키가 183cm의 장신이므로 뒷문틀에 머리가 먼저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뒷문틀은 손님들이 자주 부딪혀서인지 스티치로플을 대어 놓았다.

셋째, 문용섭 동지가 쓰러지기전 쾅 소리가 날 정도

로 포장마차의 문을 잡았었다면 그만큼 충격이 완화되어 크게 다칠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넷째, 동지는 몸무게 94kg, 키 183cm의 거구로 상대적으로 왜소한 신세일의 가격에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동지의 부검 시 모두가 의문시한 두개골의 가격점이다. 즉, 뒤로 넘어졌을시 일반적으로 그 가격점이 머리 뒷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지의 가격점은 머리의 가마부분에서 앞쪽으로 금이 가 있었다.

사고가 난 직후(8시경)부터 병원에서의 상황

문 동지가 쓰러지자 신세일, 정경, 정승철 등은 문 동지를 정승철이 타고온 차에다 싣고서 문동지의 가방과 함께 망우리 소재 제세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동부제일병원으로 향하였다.

신고에 있어 회사측은 상무가 10(오후)시경 파출소에 신고하였다고 하였으나, 가족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당일밤 11시 40분경 가족들이 신고하여 자정이 넘어서야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난 직후 부터(오후 8시) 자정까지 무려 4시간 가량의 행적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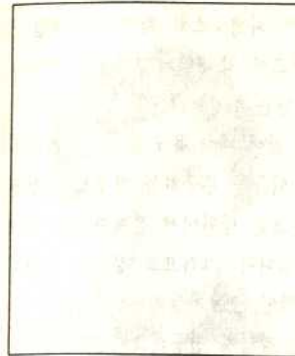
사고가 난 직후, 문 동지의 가족들이 병원으로 모였을 때 사고의 경위를 캐묻는 미망인에게 정경은 나는 "부모도 자식도 없는 고아다"라며 미망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어 댔다. 또한 동지의 처제가 노부장에게 "우리 형부가 '노부장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사실이나?"고 묻자 노부장은 "그렇다. 언젠가 죽어도 내손에 죽는다. 너희들 마음대로 처리하라."하며 일행과 함께 자리를 뒀다.

또한 정경과 신세일은 동부제일병원에 처음 데리고 갔을 때 술을 마시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처럼 위증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의사는 단순히 뇌일혈로 생각하였으나, 수술결과 두개골 골절상이었다.

한편 경찰은 사건을 축소, 단순한 개인의 폭력에 의한 사망으로 협소화시키고 그마저 지연시킴으로써 진상규명과는 반대의 길을 갔으며, 회사측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였고 가족들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전화에까지 시달려야 했다.

문 송 면 (당시 15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1973년 충남 서산에서 출생
1987년 12월 5일 야간공고 진학을 위해 영등포 협성계공(주)에 입사
1988년 2월 8일 휴직계 제출
1988년 3월 14일 수은중독 진단받음
1988년 4월 7일 노동부 서울 남부지방사무소에 산재요양신청서 제출
노동부, 산재요양신청서 처리지연
1988년 6월 29일 여의도 성모병원 직업병과로 전원함. 점차악화
1988년 7월 2일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87년 12월 영등포 소재 협성계공에 입사한 문송면 동지는 놀랍게도 불과 2개월만에 수은중독증상을 보여 6개월의 투병 끝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고향 충남 서산에서 상경한 문동지는 야간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이 회사에 들어와 압력계 커버의 신나세척, 페인트칠, 온도계의 수은주입작업을 해왔다.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새어나와 작업장의 공기가 수은증기로 온통 뿌옇고 바닥에도 액체가 된 수은이 널려있는 지경이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형식적인 개선명령만 내려놓고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작업중에도 불면증, 두통, 허리와 다리의 통증 등의 증세가 나타났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신발작으로 악화된 후 4군데의 병·의원을 전전하고서야 서울대병원에서 수은 및 유기용제 중독 진단을 받았다. 이 진단에 따라 가족들은 4월7일 노동부에 산재요양신청서를 냈으나 회사의 방해에 놀란 노동부는 10일만에 산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이 일이 신문을 통해 알려지자 6월말에야 요양승인이 나왔지만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긴지 이틀만에 문송면 동지는 운명하고 말았다. 당시 동지의 나이는 만 열 다섯살이었다.

◎ 동지를 생각하며

회사는 몸이 안좋은 석달동안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

고, 노동부는 산재처리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와 노동부가 그를 죽이고, 가난한 조국이 그를 죽이고, 부르조아 매판정권의 악덕자본가가 그를 죽이고, 신식민지 교육제도가 그를 죽이고, 알파한 중산층 가정 행복이 그를 죽이고, 미제 침략의 음란광포한 대중문화가 그를 죽이고, 도시와 농촌의 불평등이 그를 죽이고, 우리의 무관심이 그를 죽였다.

이 책은 세상 어른들의 모든 죄악이 그를 죽였건만, 그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어린 나이에, 어른들을 탓하지 않고 슬픔도 죽음도 모르는 채 다만 순결한 육체가 스스로 더럽혀져 자신을 더럽힌 이 세상의 모든 추악함을 증거하고, 끝내 천진난만한 채 갔다.

슬퍼 말라. 그는 죽음을 모르나니, 산 자의 온갖 슬픔의 무게도 그의 어깨를 억누르지 못하니, 죽음의 자본가 연속세상이 삶의 노동자 해방 세상으로 슬픔의 미제 식민지가 기쁨의 자주통일 조국으로, 참혹한 노예의 전쟁이 환희로운 생산주체의 평화로 변혁되는 날 그는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당당한 노동자도, 힘차고 아름다운 노동자로.

◎ 추모글

【성명서】

문송면군은 찢어지는 가난의 서러움을 벗어던지고, 일하면서 야간고등학교를 다니겠다고 87년 12월 협성계공에 입사했다. 그러나 15세 어린소년의 소박하고 작은 꿈은 어디로 가고 '수은 중독'이라는 직업병으로 인해 우리의 형

제 문송면군은 싸늘한 시신으로 우리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수은과 신나속에서 온도계 및 압력계를 만들기 위해 11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고, 국소배기시설이나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살인적인 작업환경에서 불과 2개월 만에 건강했던 문송면군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6개월간의 투병 생활로 신음하다 처절히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나이 어린 소년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그토록 짧은 기간에 죽음에 이르고 말았는 데도 이에 대한 관계자의 처사는 우리에게 더욱더 참담한 심정을 갖게 합니다.

가족들의 애끓는 호소도 무시한채 산재처리를 방해하고, 연소 근로자의 유해 위험 증급속 작업배치 등 위법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료주의의 속성 그대로 안일한 책임회피와 은폐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3월 14일 서울대병원에서 수은중독 및 유기용제중독이라는 진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뮴 중독으로 처절하게 죽어간 고상국씨를 고혈압에 의한 사망으로 조작 발표했던 것과 너무도 똑같이 반복된 기만과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시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작업환경 개선만으로도 노동자의 건강한 생명에 직결되는 많은 산재 및 직업병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결국에는 연소자의 생명마저도 빼앗아 자신의 기름진 배를 채우겠다는 비인간적이고, 탐욕스런 욕망을 드러내고야 만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는, 기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장시간 노동과 작업강도의 강화 등으로 노동자의 과로 그리고 안전교육, 행정감독 등의 미비, 산재 방지를 위한 대책의 결여, 수출지향적 파행구조의 희생물로 매일 5명의 근로자가 숨져가고 있으며 약 3일에 2명꼴로 직업병 유소견자가 새로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의료가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보다는 상품화되어 초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병원에서 산재환자는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생산의 주체이며 이 사회의 원동력인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재해, 직업병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와 활성화를 비롯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송면군과 같이 병원을 전전하면서 죽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만 노동자의 투쟁과 우리 사회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노동자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우리는 천만 노동자의 안전하고, 무해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건강사회 실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문송면군의 죽음을 우리사회 모두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살인적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합니다.

<1988.7.9. 건강사회실현 약사협의회 성명서 中>

성 완 희 (당시 29세)

慕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 1959년 6월 24일 충북 제천 출생
- 1974년 초등학교 졸업후 서울로 상경, 봉제공장에 취업
- 1986년 10월 태백시 철암동 강원탄광에 재탄후산부로 입사
- 1987년 8월 파업시 노동자 대표로 선출되어 파업을 승리로 이끌
- 1988년 2월 경비직으로 부당 전직 당했다가 투쟁으로 원직복귀
- 1988년 6월 21일 동료해고자 복직을 위해 시위에 돌입
- 1988년 6월 29일 노조사무실에서 5명이 단식농성중 어용노조 대의원 정대식 등의 각목 습격에 맞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 1988년 7월 8일 원주 기독교병원에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노태우가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를 열었다며 자축연을 벌이던 6·29 1주년이 되던 날, 강원도 태백시 강원탄광 노동자 성완희 동지는 "광산쟁이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절규하며 뜨겁디 뜨거운 청춘을 불살랐다.

동지는 1987년 8월 동료 이기만씨와 함께 파업을 주도한 후 회사측의 계속적인 탄압에 맞서 싸워왔으며 87년 12월과 88년 2월 두차례나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성완희 동지와 그의 동료들의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 복직을 쟁취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기만 동료가 자신의 복직투쟁을 도와준 혐의로(성완희 동지 복직호소 유인물 뿌림) 2월 2일 해고되자 자신의 일보다 더 열심히 복직투쟁을 전개하였고, 결국 노동부와 지방 노동위원회에서도 복직판정과 복직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강원탄광측이 이를 무시, 거부하자 6월22일 이기만씨는 단식에 돌입하였고 성완희 동지도 동료들과 함께 복직투쟁에 참여하였다. 이씨의 생명을 건 단식 8일째인 6월29일 '이대로 두면 우리의 이기만이 죽는다'며 동지는 동료 5명과 함께 휘발유 1통, 석유 1통을 들고 노조사무실에 들어가 문 2개를 못질하여 폐쇄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가 12시반경, 두차례나 문을 뜯고 창문을 깨고 정대식 등 구사대원들이 진입을 시도하자 성완희 동지는 "들어오기만 하면 분신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정대식이 "할테면 해봐라"고 무시하며 쇠파이프와 각목을 들고 난입하였고 성완희 동지는 휘발유를 끼얹고 성냥불을 그었다. 화

염에 휩싸이자 동료 윤두원씨가 "같이 죽자"며 겨안아 윤씨도 배에 화상을 입었다. 성완희 동지는 화염에 싸인 채 "부당하고 철회하라" "인권탄압 중지하라" "광산쟁이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외치며 밖으로 뛰쳐나가 노조앞 큰길에 쓰러져서도 "강원산일에 제발... 민주노조즘... 건설해 주십시오"라며 절규하였다.

성완희 동지는 온몸 75% 3도 화상을 입고 10일간 죽음과 싸우다 7월8일 아침 7시20분 끝내 운명하였다.

◎ 추모글

【열악한 작업장】

악질기업으로 소문난 강원탄광(1952년 설립)은 평소 이윤을 위해서는 갱내의 작업환경과 노동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많은 광산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해 불법체굴을 일삼아 왔으며, 88년 6월 25일에도 선산부 박문서씨에게 케이빙 작업으로 공동이 생긴 바로 위편에서 채굴작업을 시켜 갱도가 붕괴하여 사망했으나 시체조차 찾을 생각을 안하는 등 이윤 추구에만 광분한 채 법도 인륜도 도덕도 모조리 짓밟아 버려 구조적 살인의 주범임을 유감 없이 드러낸 바 있다.

송철순 (당시 25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 1963년 7월 13일 강원도 화천에서 출생
- 1982년 인천 신명여고 졸업. 판매사 자격 취득
- 1987년 1월 세창물산 입사
- 1988년 6월 29일 노조 창립과 함께 사무장으로 선출됨
- 1988년 7월 15일 '파업기금마련 연대집회' 준비로 현수막 설치중 추락
- 1988년 7월 17일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세창물산에서는 88년 6월 28일부터 임금인상과 어용 노사협의회 타도를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으나, 회사측이 휴업조치를 단행하자, 노조 사무장이던 송철순 동지는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파업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집회를 준비하던 중, 리슬하기 짝이 없는 슬레이트 지붕 위에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작업을 하다가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공장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후, 동료 노동자들과 이웃 노조원들의 안타까움과 분노속에 결국 17일 밤 9시 45분경, 25세의 생을 마감했다. 다음날 세창물산 건물벽에는 동지가 걸어놓은 '사냥놈이 배짱이면 노동자는 강다귀다'라는 현수막이 마침 내린 비에 젖으며 나부끼고 채 걸지 못한 현수막 '노동자의 서러움 투쟁으로 끝내자'가 지붕에 걸려 있었다.

◎ 동지를 생각하며

인간다운 삶과 투쟁,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기까지의 고통속에서 우리의 동지여, 동지여, 자본가의 횡포는 우리의 동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대 흘린피가 노동자의 서러움에
복받쳐 새로운 투쟁을 여는
우리의 인간선언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저들은 얼마만큼 많이 우리들의 피를
먹으려는가.

동지의 피를 딛고 선 우리의
투쟁속에 승리를 다짐하는
세창노조여! 세창노조여!

◎ 추모글

【결의문】

지난 9월 3일 한달만에 나타난 사장 김세준이 "경영난과 노동조합이 너무 강경하다"란 이유 하나로 300여 노동자들의 생계의 밥줄을 하루아침에 끊어 놓은 이후, 비록 오랜기간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우리 세창 깡순이들은 송철순 열사의 죽음을 가슴깊이 새기며 기필코 빼앗긴 일터를 되찾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싸워온지 이제 128일, 우리는 그간 투쟁의 과정에서 위장폐업이 50일 내지 100일, 길게는 그 이상에 이르는 장기농성속에 노동자를 방치해 둠으로써 투쟁열기가 식고 노동자들이 제풀에 꺾이기를 기다리는 악랄한 책동임을 온몸으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의 해결은 결코 호소, 청원의 차원이 아닌 굳건한 노동자들의 위력으로 본때를 보여 줄 때, 그리고 노동형제, 애국시민, 학생들과의 튼튼한 연대에 의해서만 우리 투쟁의 힘은 더욱 강해짐을 인식하며 끈질기게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보여주듯이 검찰청 역시 위장폐업에 대한 법적 규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악덕기업주를 처벌할 의사는 없이 시간 끌기로 또다시 우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긴 기간을 학교로부터의 압력, 부모님들의 걱정어린 한숨을 이겨내며, 온몸에 피멍이 들고, 동료의 다리가 부러져 나가는 아픔을 겪으며 열심히 싸워왔음에도 정부관계 당국은 저토록 기만적으로 나오고 그에 힘입어 사장은 아예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문은 안열겠다고 배짱을 튕기고 있으니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40여일이란 장기간의 치열한 투쟁이 저들에게 결정적인 압력을 가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또한 그 결정적 압력은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는가?

결국 지금껏 우리가 저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한계내에서 압력이었지 실질적 결정적 압력은 못되었던 것이 분명하며 그 실질적 압력의 힘은 바로 지역노동형제와의 폭넓은 연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창 깡순이들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단내 노동자들 중에도 아직 세창물산이

문을 닫았다는데 왜 싸우고 있는지 모르는 노동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며 세창 투쟁에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몰라 안타까와 하고 있는 노동형제도 무수히 많은 현실을 보면 그간 우리의 연대가 얼마나 소극적이고 단편적이었나 입증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연대는 보다 폭 넓고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화절상 등으로 끊임없이 중소기업이 위협당하고 있는 올 상반기 임투시기에는 자본가들은 수틀리면 손쉬운 노조탄압방식으로 위장폐업이란 무기를 쓸 것이 분명합니다. 즉, 이제 위장폐업의 위협이 도처에서 나타날 것이며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위협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세창의 위장폐업 본쇄투쟁이 지역노동형제들과의 힘있는 연대로 끈기있게 수행된다면 이는 이후 투쟁의 커다란 물줄기를 형성해 나갈 것임을 저희 세창 깡순이들은 확신합니다.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송철순 열사의 희생까지 치루면서 지켜온 노동조합을 사수하기 위해 세창 깡순이들은 앞으로도 지침없이 모든 투쟁의 선두에서 당당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1989.1.20.

세창물산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이 문 철 (당시 34세)



- 1954년 충남 당진 출생
- 1969년 충남 당진중학교 졸업
- 1970년 인천 신진자동차 공업사에 정비공으로 입사
- 1986년 대원여객 입사
- 1988년 10월 부당하게 해고 당함
- 1988년 11월 1일 부당해고와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에 항의투쟁 중 분신
- 1988년 11월 6일 한강성심병원에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88년 6월27일 대원여객의 노동자들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운행을 거부하자, 승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문철 동지를 부당 해고시켰다. 그러나 동지는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이창국 동지와 함께 삭발을 결의하고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사장면담을 요구하던 중, 부당한 해고조치에 격분한 동지는 신나를 온몸에 붓고 분신을 감행하자 이창국 동지도 함께 분신하였다.

병원에서도 "업주들이 기사들을 숙여먹고 노예취급을 한다. 돈 몇푼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대접을 받고 싶다. 노동자를 하인이나 종취급하는 사용자들의 정신상태를 뜯어 고쳐야 한다. 주종관계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말을 끝으로 부인과 세명의 자식들을 남기고 산화하여 갔다.

◎동지를 생각하며

시퍼렇게 떨쳐 일어날 노동해방의 역사를 위해 남은 먼저 산화해 갔다.

꽃꽂이 일어설 노동해방의 아침까지 불멸의 불꽃으로 살아 있을 님이여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곁을 떠나 왔다.

우리는 정든 고향을 떠나 왔다

누가

이 비극의 땅을 지키겠는가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다

가진 자들이여

폭력의 권력자들이여

적들이여

당신들을 분쇄하기 위해

우리들이 주인되는 평등의 나라 노동해방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척박한 노동현장으로 우리는 뛰어 들었다

오, 오!

꿈도 그리움도 민족을 사랑할 최소한의 힘까지 앓아

가 버린 적들을 향해

젊은이들이여

노동 형제들이여

가슴에서 솟구치는 박동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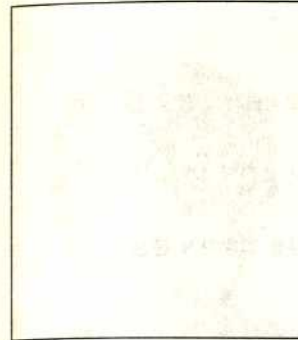
대지가 찢기우도록 힘차게 진군하며 모든 불의와 폭

력과 마주서

이제는 투쟁이다

님이여 이제는 고이 잠드소서

배 중 손



- 대건고 졸업
- 구미 금성사 근무
- 1988년 11월 14일 운명

◎사건경위 및 의문점

유가족과 회사 동료들의 증언을 조합하면 배중손 동지는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하고, 술은 좋아하나 자제할 줄 알아 실수는 하지 않는 사람이며, 절대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청렴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카톨릭 신자로 부인과 두 딸(5세, 3세)과 함께 단칸 월세방에서 어려우나 성실히 살아왔다고 한다.

배 동지는 97년 8월12일부터 16일까지의 회사측의 휴업조치 이후 어용노조의 민주화와 임금인상 파업농성과 정에서 앞장서 싸웠고 구미의 원평성당에 있는 '국민운동본부'와 '카톨릭 근로자센타'에 혼자서 두어 차례 상담을 하러 가기도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이 회사측에 알려져 배 동지는 부산에 있는 관리자와 함께 며칠간 강제출장(사실상 납치와 다름이 없다)을 보내졌으며 부산에서 올라온 이후에 다시 9월5일부터 15일까지 출장명목으로 납치되었다. 회사측의 출장명목은 전국의 아파트서비스 지점 순방이었고 출장코스는 구미 - 포항 - 울진 - 동해시 - 강릉 - 속초 - 거진 - 홍천 - 춘천 - 원주 - 춘천 - 원주 - 충주 - 청주 - 대전 - 구미 순이었다고 한다. 관례와는 달리 배 동지에게는 출장비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돈을 꾸어 써야 했고 납치과정에서 배 동지는 삶에 대한 절망과 회의로 인해 연일 소주로 과음을 하여 9월초 쟁의가 끝난뒤 돌아왔을 때는 술자리에서 얼굴에 식은 땀을 흘리고 술잔을 든 손을 계속 떨었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온 직후에 이런 배 동지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한결같이 "사람이 변했다"고 했고 본인도 "내가 이상하니 정신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10일간 대구의 신경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이때 배 동지는 휴직계를 냈는데 회사측은 계속 약속을 어기고 원직복직을 시켜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약7개월 만인 5월5일에야 복직이 되어 현장 자재창고에서 일하게 되었다.

사건당일인 11월14일 아침에도 웃으면서 출근하였는데 오후 5시경에 부인이 근무하는 공장에 관리자들이 찾아와서 배 동지가 죽었다고 하면서 순천향병원 영안실로 가자고 하였다. 부인이 영안실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회사측에서 경찰을 불러 조사를 끝내고, 현장을 치웠으며 주변 동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등 모든 조치를 끝낸 상태였다. 경찰은 부인에게 물으려 하지도 않고 직원에게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면서 열쇠를 가져갔다. (영안실 직원 증언) 다음날 오전 10시경에야 사체를 보았을 때는 이미 깨끗한 모습이었다.

회사측의 얘기로는 12시이후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오후 4시경에야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비해 배 동지의 동료인 남성택씨는 오후 2시30분까지 같이 있었다고 엇갈린 진술을 했다.

배 동지의 동료들은 동지의 죽음은 원천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일반적인 노동운동 탄압책인 "납치극"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금성사는 고도의 노무관리로 동지의 죽음을 유도했으며 배 동지는 죽음 당일까지 인사과에 불려가 심한 문책을 당했다고 한다.



- 1964년 11월 2일 충남 천원에서 출생
- 1983년 인천에서 공장생활
- 1987년 산업재활원 방문, 환자들을 위로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재해자들과 삶을 같이함
- 1989년 계양구 박촌동 소재 흥업사에서 손가락 4개가 찢리는 산업재해를 당함
- 1989년 4월 9일 부평 철마산에서 산재없는 세상을 열망하며 분신

◎동지의 삶과 죽음

최완용 동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9세의 어린 나이에 정든 부모님과 어린 아우의 곁을 떠나면서 "부모님 제가 도시에 나가 열심히 일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날까지 고생이 되더라도 참고 견디십시오" 하는 말을 하고 인천에 왔다.

동지는 저임금과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속에서도 주일이면 산업재활원을 방문하여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자 회사에서 남달리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였다.

1989년 3월 1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안전장치도 없는 프레스에서 작업하다 오른손이 잘렸다. 동지는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병원 산업재활원에서 재활 기술을 배우기를 희망하였으나 회사와

병원(김인상 정형외과)의 거부로 그것마저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내가 죽으면 중앙병원 영안실에 안치해 달라'며, 죽어서도 산재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유서를 남긴 채 산재 노동자의 한을 가슴에 품은 채 온몸에 불을 붙여 산화해 갔다.

동지는 산재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영리에만 치우쳐 노동자의 생명과 생존권을 말살하는 자본가를 신랄히 비판하면서 숨진 것이다.

흥업사(대표 조수평)은 기업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회사직원 4명을 동원하여 '회사에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협박과 공갈을 했다.



- 1964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출생
- 1983년 3월 국민대학교 무역학과 입학
- 1986년 5월 5·3인천 투쟁에 참가하여 구속되어 1년형을 선고받음
- 1988년 7월 덕진양행 입사
- 1988년 11월 29일 덕진양행 노조결성, 위원장으로 선출됨
- 1989년 4월 23일 협상 결렬에 항의, 분신

◎동지의 삶과 죽음

5·3 인천투쟁에 참가하여 실형 1년을 선고받았던 김윤기 동지는 만기출소 후 노동자와 삶을 함께 하고자 1988년 7월 덕진양행에 입사하였다. 동지는 동료들과 함께 열악한 봉제공장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11월 29일 남자 기숙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위원장에 선출되어 회사측과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측의 야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계속 결렬되었고 공장장과 구사대는 조합원을 구타, 폭행, 노조 집 단탈퇴 음모를 조작하며 단전, 단수, 전화 불통 조치를 취하고 업무집행 방해, 퇴거불응 명목으로 고발하는 등 숨막히는 탄압을 자행하였으며, 급기야 1월 중순에는 '공장이전'이라는 신종노조 탄압을 성남지역에서 최초로 휘두름으로써 민주노조의 생명을 끊어놓으려 하였다.

이에 덕진노조는 김윤기 위원장을 중심으로 뚫돌 뭉쳐 "경비절감 한다더니 땅값 비싼 서울이전이나 서울이전 철회하라!" 외치며 2월16일부터 파업농성에 돌입하였다. 그 이후 지속적인 교섭결렬로 3월 30일 10차 교섭까지 결렬되자 파업투쟁 47일째인 4월3일 김윤기 동지와 노조지도부는 이 협상이 마지막이라는 굳은 결의와 각오로 협상에 임하였다. 그러나 사장이 계속 억지 주장만 되풀이 하며 또 다시 협상이 결렬되자 이에 격분한 김윤기 동지는 공장이전 철회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며 자신의 몸에 신나를 끼얹고 항의 도중, 온몸에 평하고 불이 붙어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던 중 운명하였다.

◎동지를 생각하며

우리 윤기 보고싶어 어떻게 하나. 이 어미를 버리고 다시는 못 올 길 갔으니, 어데가서 보나요. 나는 9·28 때 버려져 피난나와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라 배우지도 못하여 우리 윤기라도 가르쳐서 저의 한을 풀려줬는데 한을 풀기는 커녕 내 가슴에 영원한 못을 박고 갈줄이야 상상조차 못한 일이죠. 우리 윤기는 어릴 때 부터 온순하고 말없이 잘자라 왔지요. 한없이 어질고 상냥하게 자라던 우리 윤기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 던질만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견디기 어려울 만큼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날이 갈수록 여러 열사의 어머님들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 윤기를 애도하는 마음에서 찾아 주시니까 제 마음이 위안됩니다. 윤기는 민주화를 위해 온갖 몸과 마음을 바쳐 싸우면서 이 어머니는 윤기를 나무라고 하면 조금만 기다리라 하던 윤기는 몇개월 동안 보지도 못한 채 다시 못을 영원한 길을 떠났군요. 윤기 아버님이 가신지 일년도 채 못되어 자식을 잃은 이 어머니의 심정 갈기 갈기 찢어지는 아픔, 열사의 부모님만 아는 고통, 윤기는 이만치 장성하도록 용돈 한번 주지 못해 한이 되어 어찌 하오리까.

이 어머니의 아픔을 무엇으로 푸나요. 불쌍한 우리 윤기, 어떻게 무엇으로 한을 풀어주나요.

윤기의 죽음이 헛됨이 아니겠지요. 우리 윤기, 불쌍한 윤기, 하루 속히 민주화가 이루어져 윤기의 영혼이라도 춤추는 모습이 오리라 믿지요.

은 국민이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노력하며 열사들의
한을 풀어줄 날 오리라 믿고 있지요.

◎추모글

【시】

열사의 무덤 앞에서

김선미(김윤기 동지의 동생)

품이 넉넉한 오빠대신에
세상을 꺼안기로 했지요.
세상은 내 환몽으로 보듬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고 무겁지만
삶과 죽음이 가로 놓여 가까이 가려해도
갈 수 없는 오라버니 따스한 품속보다
차라리 오라버니가 꺼안으려 했던 세상을
보듬기로 했습니다.
그 편이 덜 안타깝고 속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 가서 품에 다아본 세상은
뼈죽뼈죽 가시가 돌아 있기도 하고
뭉글뭉글 어머니 젖가슴 마냥 귀퉁이 밖에 안되었지만
칙칙한 흙 속에 갇힌 오라버니 몸뚱이보담
따스함을 가진 사람들이 부대끼고 살아가는 세상이
훨씬 살아있을 적 오라버니를 닮았지요.
이제 속절없이 오라버니 곁에 함께 있지 못함을 서운해 하
지는
않을 겁니다.
오라버니가 불덩이를 이고 걸었던 노동해방의 길에
태우다 사그라든 불을 지퍼 놓을랍니다.
오빠가 집졌던 죽은자리 대신에
보란 듯 노동자 세상을 채우겠습니다.

◎유고글

【편지1】

부모님께

날씨가 무척이나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버님 병환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선미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겠지
요. 영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제 할 일은 잘 알아
서 할 것입니다.

제가 구속이 된지도 벌써 두달이 다 되어갑니다. 많
은 걱정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대학에 갈려

고 결정하였을 때는 그 동안 쪼들리고 쪼들어서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면서 저희들 가르치시고 키
우시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과 저희 집과 같은 어려운 처
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닿는대로 도움을 주면서 소
박하게 살아갈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세상 넓은 줄 알고 어려운 줄 알았
습니다. 그 어려움은 개인의 의지, 즉 저의 소박한 희망과
는 무관하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다시
한 구석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며 환송지며 살아갈 것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가난이라는 문
제는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과제이고 이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는 서로를 속이고 짓밟고 위에 올
라서는 아수라장의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경동시장에서 리어카를 끌고 밀고
하면서 두길이나 되는 채소더미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
는 것을 보고는 퍼뜩 우리가 채소가게 하던 때의 아버지 어
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가까운 친
척이나 되는 것처럼 친근하고 다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단
순히 남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한국에 사는 동포, 내가 그 사
람과 같고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한국인이고 같은 피, 같
은 살,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
다.

입학당시의 소박한 저의 희망은 거대한 포부로 바뀌
었습니다. 가족만이 아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영기,
선미만이 가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족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가난하고 억눌리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
는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저도 남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아
볼까 생각해 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때론 못
벌더라도 알뜰하게나마 부모님께 월급봉투를 내밀어 보고
도 싶고 코딱지만 하지만 마당에서 세수나 할 수 있는 내
집을 갖고서 살고 싶고, 흔히 이야기 하는 장남의 역할을
남부럽지 않게 해보고 싶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
다.

그러나 지금은 저의 모습이 처량하게까지 느껴지곤
합니다. 부모님 말씀 기억하는 망나니가 되어있고, 장래성
없는 건달이 될 것도 같고, 한 평생 남에게 도움은 못 줄
망정 거지 노릇이나 할까 겁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제가 한 일을 잘못했다고 생

각하거나 반성을 하여서는 아닙니다. 제가 가고 있는 길은
절대적으로 옳은 길입니다. 그 옳은 길이 가족의 문제와 대
립적인 문제로 발생했을 때 저도 가장 힘들고 괴롭습니다.
저도 가정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저에 관한 일과 함께
무척이나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러한 녀석이 이렇게 감옥
에나 들락거리고 있느냐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저의 어머님이시고 우리 형제들의 어머님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마음
을 가지는 것이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
나 국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처럼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도록 사람들을 보호하고 감싸며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더 크신 어머니(물론 비교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국가가 소수의 권력 모리배들에게 유
린당하고 악용 당하고 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폭력배들에게 머리채를 끄덕이며 맞고 있을
때에 저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둘은 모두 같은 이치인 것
입니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로. 어머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는 분명합니다. 누구보다 양심적이고,
누구보다 착하게 살려고 하며, 또한 성실하며 궁극적으로는
현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멍청하다고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바로 나 자신과 가족도 같이 위하는 길
이 되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자 할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마침내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추워질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몸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1986. 11. 11.
불효자 올림니다

【편지2】

아우님 보시오.

공부하랴 일들하랴 힘들게 생활하는 모습이 눈에 선
하오.

참으로 즐거워할만한 일인 것 같소.

차가운 마루바닥, 거무튀튀한 보리밥, 수십명의 교
도관에 팔을 뒤틀려도, 땅에 질질 끌려가도 승리의 자신감
에 찬 힘찬 '타도'와 '쟁취'의 외침 뿐 우리에게겐 오직 전진
뿐이오.

사랑하는 조국이 있기에, 믿음직한 동지들이 있기에,
또한 우리들의 정당함이 승리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쓰
러질 수 없고, 쓰러지지도 않을 것이오.

형을 줄지에 보지 못하게 된 설움과 방황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 같오.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모두 단합하여 한치의 틈과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들을 풀어나가야 할 줄 아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쳐도 승리의 그
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잊지 말고 힘차게 버티며 싸워나가
야 할 것이오.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소. 병들지
않고 항상 푸른 나무로 자라나길 바라오.

이만 줄이오.

1986. 11. 6.
윤기 씀

김종수 (당시 23세)

慕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 1966년 3월 21일 전북 장수군 출생
- 1979년 빈암 중학교 입학, 3년중퇴
- 1985년 서울 상경 동대문 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함
- 1988년 7월 31일 (주)서광구로공장에 입사
- 1989년 1월 쟁의부장 임명
- 1989년 4월 18일 노동운동 탄압분쇄, 임금인상 완전쟁취, 서광 구로지구의 독자적 운영 쟁취등을 내걸고 파업시작
- 1989년 5월 4일 오후 1시 15분경 회사측의 탄압에 맞서 "무노동 무임금 철폐" "민주노조 사수" "동지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외치며 분신 밤 11시 30분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서광 구로지부는 89년 4월4일 어용노조가 지부노조 임원4명을 제명시키는 등 탄압을 노골화하자 준법투쟁을 통해 자주적 조합활동의 보장과 제명철회를 요구하였다. 준법투쟁 12일째, 지부간부 5명이 삼미노조에 연대갔다 오던 중 강제연행되자,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은 4월18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5월4일 회사측이 구두로 합의한 전 날의 교섭을 번복하자 이에 격분한 쟁의부장인 김종수 동지가 "민주노조 사수하자" "셋방살이 노동자의 서러움은 싫다" "동지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외치며 분신하였다. 김종수 동지는 밤 11시30분경 차마 눈을 감지도 못한채 공안정국의 '무노동 무임금' 논리와 회사, 본조의 지부탄압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영원히 우리곁을 떠나갔다.

◎동지를 생각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요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매도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독재 정권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던 김종수 동지는
평소에 차분하고 조용하던
언제나 자신의 역할이 부족한 것을 미안해 했던
23살의 책임감 강한 청년이었다.
그의 참된 위대성은 소박한 마음가짐에 있었고
참으로 올바르게 세상을 사는 방법을 알았을 때
평탄하고 안이한 삶이 아닌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아는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였다.

故 김종수 열사, 그는 2천5백만 노동자들의 선봉에 선 햇불이 된 것이다.

(비문 中에서)

◎유고글

【동지의 말】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것,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동지에 대한 배신이다.

◎추모글

【시】

사랑보다 더 깊은 진실속에

한 선주

오월의 눈부신 햇살아래
우리의 분노를 태워버린
김종수 동지여
삼켜버릴 것 같은 함성
피땀한 절규
노조탄압 중지하라

무노동 무임금 철폐하라

아! 동지의 육신은 우리곁에 없지만

동지의 뜻 천만 노동자 가슴속에

영원히 타오르고 거대한 불꽃으로 남아있으리라

사랑보다도 더 깊은 진실속에 망울지는 눈망울

아~ 검게 탄 진실이여

아~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여

【동지를 그리며】

5월4일, 무척이나 더운 날이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중수의 분신소식을 들었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다. 총알같이 달리는 택시 속에서 바싹바싹 입술이 타들어가는 것을 억지로 깨물며, "아닐거야, 허위겠지, 누가 장난전화 한 것은 아닐테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허둥지둥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타다만 옷조각이 널려 있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욱'하게 밀려오는 것 같더니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때마침 도착한 신문기자가 나를 붙잡고 나의 심정을 물었다. 나는 끊어오르는 분노에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자본가 새끼들 다 때려 죽이고 싶다"고 응급실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다.

응급실에 타서 그을리고 핏물이 흐르는 중수의 신체가 눈에 들어왔다. 도저히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옆으로 다가가 나의 손을 잡고 중수는 말했다.

"홍철아, 너는 비겁한 노동자가 아닌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나는 정말 셋방살이가 싫었다. 서울 올라와서 잘 살아볼려고 별짓 다하면서 몸부림쳐 봤지만 이 사회는 잘 살려고 한다고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더구나.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 가족외는 출입이 통제되는 바람에 중수와 한 말은 영원히 내게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다.

힘들고 어려울때 꽃밭에서 찍은 중수사진을 보며 힘을 되찾곤 한다.

이상남 (당시 30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열사묘역



1959년 전남 신안군 비금면에서 출생
1984년 10월 1일 현대 엔진 공업에 입사, 상기철구 공장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
1987년 9월 12일 현대중공업 구사대 차량에 깔려 중상
1989년 5월 16일 612일간의 사투끝에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87년 9월 12일 현대 중공업 노조 임원 개선 명령 움직임에 대하여 그룹 노조 협의회의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현대 중공업 민주노조 총무부장 김형권씨가 노동자들에게 발표한 성명서를 복사하기 위해 엔진 노조사무실에 왔다.

이때 백색 승용차 3대와 12인승 봉고차를 타고 온 정체 불명의 괴한 30여명이 현대 중공업 경비대장 조남길을 선두로 엔진 노조 사무실에 무력으로 집단 난입하여 김형권씨를 무차별 폭행하며 봉고차에 밀어 넣자 노조 사무실에 있던 임원들이 봉고차를 막고 저지시키려 했다. 휴식시간을 갖고 있던 이상남 동지와 다수가 이에 합세하였다. 여러 사람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봉고차는 그냥 전진했으며 이 와중에 동지는 차 앞바퀴에 머리와 대퇴부가 5m를 질질 끌려가는 중상을 입었다. 이후 1년 8개월의 긴 투병기간 중 끝내 운명하고 말았다.

◎추모글

【추모의 글】

결코 잊지못한 그 날의 분노 뇌쇄기며
- 이상남 동지를 뜨거운 가슴으로 감싸안고

이상남 동지여! 당신이 구사대 폭력(차량 테러)에 의해 온 몸이 으스러지던 때가 엇그제인 듯 기억에 생생한데 손으로 폼아보니 햇수로 10년이 되었구려. 온 몸이

으스러져 612일 동안 기나긴 투병생활한 보람도 없이 끝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언 8년의 세월이 흘렀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누군가 말했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잊혀져가는 당신의 그림자가 아쉬워 동지의 이름 불러 본다오.

사고 당시 스물아홉의 총각으로 결혼을 앞둔 당신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일곱 형제들과 지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잘 살아보려 했지요. 악몽같은 그날 못 본 척 지나칠수도 있었을 일을 당신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여 살인 무기가 되어버린 봉고차를 가로막았지요.

87년 9월 12일, 이상남 동지를 죽음으로 몰고간 사건은 현대엔진 노조사무실 앞에서 일어났다. 87년 7, 8월 노동자 대투쟁에 앞장섰던 현대그룹 노동자들의 기대한 합성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그 힘으로 현대그룹과 그룹노조 협의회는 9월 1일까지 임금협상을 끝내기로 합의했으나, 협상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이에 분노한 2만여명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20여Km를 걸어 시청앞까지 항의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뜻모를 시청 방화사건에 휘말려 공권력의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노조 상집간부가 구속되고, 다행히 피해있던 현중노조 총무부장 김형권씨가 조합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항의집회를 주도하고 있었다.

당연히 회사와 경찰은 현중노조 총무부장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뜨거운 동지애로 구속자 석방을 외치는

중공업 노동자들의 쟁의를 지원하기 위해 87년 9월 12일 오후 3시 현대엔진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협의회 모임이 있었다. (현중노조 임원개선명령에 대한 대책회의)

이때 성명서 발표를 위해 복사하러 온 현중노조 총무부장을 잡기 위해 정체불명의 괴한 25~30명이 흰색 승용차 3대와 12인승 봉고차를 타고 나타났다.

엔진 노조 사무실로 들이닥쳐 현중노조 총무부장을 무차별 폭행하여 실신케 한 뒤 끌고나가 기다리고 있던 봉고차에 밀어넣고 팔을 비튼채 집단 폭행하였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였다.

이에 엔진노조 임원들이 봉고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자, 15시에 쉬고있던 산기철구 이상남 조합원과 여러명의 조합원이 합세했다.

여러사람의 저지에도 봉고차는 미친 듯 계속 앞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상남 동지가 봉고차 앞면에 들이받치면서 쓰러졌다.

"사람이 깔렸다. 세워라."고 여러사람이 외쳤으나 "밀어부쳐"라는 구사대 지휘자의 명령에 이상남 동지의 대퇴부가 앞바퀴에 끼쳐 5m가량 끌려가 온 몸이 으스러졌다.

실로 생각하기조차 못스러지는 순간이었다.

이때 200여명의 엔진 조합원이 몰려오자 괴한들은 봉고차를 버리고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도망쳤고, 분노한 조합원들은 조남길을 포함한 7명의 구사대를 붙잡아 조합 사무실에 넘겼다.

괴한들의 정체를 추궁한 결과, 7명 모두 중공업 총무부소속으로 상부의 명령을 받고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엔진 노조측은 곧바로 이상남 동지를 해성병원으로 옮겨 긴급 치료를 받게 했으나 6주의 진단을 내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금이가도 6주 진단이 나오는데 온 몸이 으깨어진 중환자 진단이 겨우 6주라니.....

가진자의 편에 빌붙어 인간의 기본 양심마저 팔아 처먹는 썩은 사회의 한 단면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노동자는 없었다.

그러자 가족쪽에서 "이런 해성병원은 믿을 수 없다"며 9월 14일 동강병원 1002호에 입원을 시켰으나, 그곳 역시 처음 내려진 진단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6주의 진단을 내렸다.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고 올바른 의술을 펼쳐야 할 병원이 가진자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이 사회의 모순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차량테러 구사대는 팔개치고

엔진 조합원들에게 붙잡힌 7명의 구사대는 곧 경찰에 넘겨졌으나, 다음날 모두 풀려났고, 진두 지휘자 조남길은 20일 후 '경찰의 날'에 모범 시민상을 받았다.

환한 대낮에 죄없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차로 사람을 깔아뭉개 죽이려 한 인간이 모범 시민이라니.....

또한 경찰은 봉고차 운전자 배무한씨에 대해 단순 교통사고로써 고의가 없다고하여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이상남 동지는 형법 254조의 '살인 미수죄'나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해 달라는 항고를 냈으나 기각됐다.

또 배후조종자로 짐작되었던 회사측 총무과장은 뒷날 2. 21 식칼 테러를 알장서 지휘하면서 각목을 들고 파업 노동자를 쫓아가는 모습이 포스터로 전국에 알려졌다.

〈현대 중공업 노동조합 사보에서 97년 5월호〉

조 정 식 (당시 25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 1964년 1월 17일 대구시 수성구에서 출생
- 1982년 서울대 물리학과 입학, 학생운동에 투신
- 1984년 7월 제적, 인천 범아산업에 취직
- 1986년 5월 인천 진도에 입사하여 노동운동 시작함
- 1987년 11월 반제동맹사건으로 구속, 3년형을 선고
- 1989년 5월 10일 영전기계에 취업
- 1989년 5월 24일 오후 3시경 공장에서 산재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조정식 동지는 대학에서 제적된 후 인천 범아산업을 거쳐 인천 진도에 입사하여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동지는 진도에서 천목회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현실에 관해 토론활동을 했으며 투쟁을 호소하며 철서를 쓰기도 했다. 그러다가 87년 반제동맹사건으로 처안본부 인천 대공본실에 불법연행되어 고문을 당하고 0.7평의 차디찬 독방에 수감되었다.

88년 석방 후 89년에 영전기계에 선반공으로 취업한 동지는 힘들지만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생활을 더없이 좋아했다. 그러나 5월 24일 드릴링 작업중인 조정식 동지 뒤에서 선반공이 시간에 쫓겨 선반의 속도를 높이는 순간 공작물 균형을 위해 고정시켜 두었던 추(약 30kg)가 튕겨 나와 동지의 뒷머리를 강타, 병원으로 옮기던 중 운명하였다.

◎동지를 생각하며

당신은 진짜 노동자였습니다.

문재환(서울 동부지역 금속노조위원장)

동지는 어쩌하여 한 많고 설움 많은 한 모퉁이에 이렇게 싸늘하게 누워 있습니까?

채 피지도 못한 스물 여섯의 젊음을 누가, 누가 이렇게 무참히도 꺾어버렸단 말입니까?

도대체 나라의 자주와 민주, 통일이 무엇이길래, 공장 노동자가 되는 길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 당신은 목숨까지도 송두리째 바친단 말입니까?

아! 어리석은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동지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랑했던 수많은 것들 중에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것이 바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면서 가장 천대받는 이 나라 노동자들.

허울좋은 고도성장과 알량한 선진조국의 환상 속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월세방 값에 한숨이며, 먼지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캄캄한 작업장에서 기계에 손가락이 찢리고 언제 산업재해로 죽을지도 모르는 생지옥 같은 공장에서 한 시간을 뼈빠져라 일해도 돼지고기 한근 값도 안되며, 팔네미가 그렇게도 입고 싶어하는 꼬까옷 하나 마음놓고 못 사주고 천원짜리 싸구려 옷도 큰맘먹고 떨리는 손으로 겨우 사는 이땅의 일천만 노동자를 사랑하셨군요.

아! 위대하신 당신, 그래서 당신은 진짜 노동자입니다. 당신은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일천만 노동자의 동지인 것입니다.

동지여! 진짜 노동자, 영원한 노동자 조정식 동지여!

당신은 지금 죽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조정식 동지여!

이제 살아남은 우리 맹세하나니 동지의 뜻을 이어받아 살아있는 우리 목숨이 내것이 아니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가 추방되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이천오백만 노동자 모두가 모여서 함께 사는 참된 세상, 노동해방을 위하여 목숨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유고글

【편지】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저는 아직 아버님께 못난 아들입니다. 집안의 장남이면서도 아버님을 그 머나먼 땅에서 고생하시도록 만들고 가족들에게 본의 아니지만 온갖 슬픔과 고통을 주었던 점에서 저는 못난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가 걷고자 하는 길을 훌륭하게 걷고 있지도 못하다는 점에서 저는 더욱 못난 아들입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도 최고학부의 교육을 받아 머릿속에 든 것은 많지만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 제가 가장 훌륭하고 떳떳하다고 믿는 길을 헤쳐나가고 있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아도 저 보다도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함으로써 후대의 귀감이 된 사람도 많지만 저는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불의에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도탄에 빠진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 굽히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만일 언젠가 제가 나라를 위해 조그마한 업적이라도 남긴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의 결과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 할 겁니다.

아버님 저는 제가 걷는 이 길이 아무리 옳고 떳떳한 길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이 겪어야 할 고통이라면 저는 아무리 커다란 고통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맞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아버님, 어머니, 동생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더구나 미제국주의의 하수인격인 저 가증스러운 군사독재놈들이 의도적으로 가족들에게 귀찮게 하고 감시와 탄압의 마수를 뻗으면서 "당신 아들 때문에 그렇다"고 지껄여 댈 때는 저

는 나라의 현실이 슬프기에 앞서 가족들이 어쨌든 저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데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제 주위에만도 아들을 민주화의 성전에 바친 어머니, 아버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모두 다 아들의 원수를 갚고 한을 풀기 위해서 애국 민주화 투쟁에 적극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문당하다 죽은 제 선배, 후배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일본과 미국의 식민지 지배 아래서 조국의 자주독립,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숨져 간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 덕에 오늘의 이 나라가 있다고,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나라 위한 한길로 꿋꿋하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1989. 4. 25. 서울에서

【동지의 진술】

'반제동맹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향한 모두 진술

나는 어릴 때부터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내가 초등학교 6학년때 교실 앞에 걸린 청산리 전투의 그림을 보면서 거기에 그려져 있는 독립투사와 같이 나도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애국자가 되기가 너무 쉽다. 독립기념관 건설이니 평화의 댐 건설이니 하는 데에 돈을 좀 낸다던가 해서 마치 자기가 애국자인양 설치고 있고, 심지어는 대공본실에서 나를 고문하던 놈도 자기가 애국자라고 했다. 내가 아니라고 했더니 그놈은 자꾸 애국자라고 우겼다. 이야말로 진짜 애국자, 애국 선열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 진짜 애국자는 누구인가? 진짜 애국하는 사람은 돈과 권력으로 애국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고통받는가를 알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루하루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에는 잘 사는 놈들도 있다.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이런 자들이다.

내 생각은 이런 정도였다. 그런데 나는 작년에 진도

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좀 의식이 발전하였다.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다녔던 진도라는 회사는 종업원이 600명이나 되고 일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회사였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은 일은 안하고 청소하는 날이 있다. 그날은 진도의 목숨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미국 글지의 외국인사가 오는 날이었던 것이다. 내가 진도에서 분명히 깨달았던 바, 그것은 지금까지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람은 사장이라 생각했는데 그 위에서 사장을 지배하는 놈이 또 있다는 것이었다. 미제국주의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을 억압, 착취하는 원흉이다. 그래서 나는 애국하는 길이 바로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미제와 그에 빌붙은 극소수의 매판 자본가들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애국투쟁을 했고 노동자와 함께 하려고 했다.

이상모 (당시 20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열사묘역



1969년 전남 보성 출생
1985년 광주 동신중 졸업
1986년 광주 직업훈련원 수료
대우조선 입사
1989년 5월 29일 대우조선 제3기숙사 7동 옥상에서 분신, 투신

◎동지의 삶과 죽음

5월 29일 오후 10시 40분경 대우조선 이상모 동지가 제3기숙사 7동 옥상에서 분신후 투신 사망하였다.

이날 오전 9시 박진석 동지의 분신소식을 듣고 회사의 노조본영 책에 분노하면서 기본근무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옥포 관광 호텔 용역계약 해체 철폐투쟁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옥포로 갔다가 취소된 것을 알고 격분하였다. 이상모 동지는 조재현(20세, 조립2부)씨와 술잔을 하면서 "평소에 분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다.

이상모 동지는 그후 들어와서 친구인 전영대씨(23세, 조립2부)에게 라면을 끓여 먹는다면서 알콜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다른 동포들에게 인사를 하였다고 한다.

이상모 동지는 버너에 쓰는 알콜, 석유 등을 갖고 옥상으로 올라가 분신후 투신하였다.

◎유고글

【유서1】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불초소생은 결코 부모님보다 오래살지 못할 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모든 세상의 순리가 그러하듯이 강자가 있으면 약자가 있고, 약자가 있으면 강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님, 더러운 세상 먼저 하직하는 불초소생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경영자란 놈이 생각하는 것이 노동자 탄압과 자신의 명분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노동자는 이땅의 노예밖에 더 되겠습니까?

부모님 불초소생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못난 불초소생은 먼저 이 세상을 하직하오니 부디 제 생각 마시고 독한 마음 잡수시고 저의 못다한 세상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세상, 더러운 자본가, 더러운 경영인, 이 추잡한 세상에 태어난 나 자신이 너무나 미워 죽겠습니다.

1989. 5. 29. 22시 15분

대동단결 대동투쟁 원지복지

임금인상 확실하게 쟁취하자

【유서2】

친구들아 미안 하구나. 이 소인은 먼저간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원지복지 임금인상 확실하게 쟁취할수 있는 노동자의 앞에서 나가기 바란다.

1989. 5. 29. 이상모

<친구들에게 남긴 유서>

◎추모글

[시]

이 추잡한 세상 불사르고 날아간 새

1989년 5월 29일

밤10시 40분

어두운 하늘은 노을빛 불사르고
더러운 세상
더러운 자본가
더러운 경영인
이 추잡한 세상에
태어난 자신을 미워하며
.....

오-

동지여!-

위대한 노동자여!

지금 우리 모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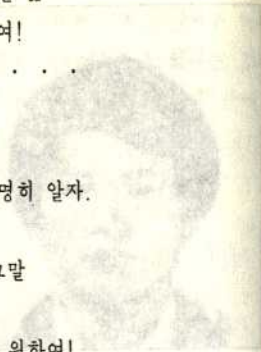
불기둥 깊은 가슴을

스스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잡한 세상에서.....

노예로 살기 보다는
멋쟁한 죽음을 택한
한 인간으로서의 애절한 삶
영원 불멸의 불기둥이여!

.....
동지들이여!
형제들이여!
우리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자.
우리 하나일 뿐이다.
동지가 남긴 마지막 그말
대동단결, 대동투쟁
노동자의 합성 승리를 위하여!



박진석 (당시 20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열사묘역



- 1967년 전북 고창에서 출생
- 1983년 영선중학교 졸업
- 1984년 인천 직업훈련원 수료, 대우조선 입사
- 1988년 진주 방송통신등학교 입학
- 1989년 5월 29일 구사대 가입을 강요하자 '노동자와 노동자간의 싸움을 유발시키지 말라'며 항의, 분신·투신
- 1989년 6월 4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박진석 열사는 회사측의 지나친 임금동결 요구와 노동조합 탄압과 분열을 위해 구사대조직인 상록회를 만드는데 항의, 분신하였다.

88년 무노동무임금 억지논리에 이어 89년 적자기업 임금동결정책이라는 기만적 술책은 재벌들의 경영잘못으로 인한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적자기업 임금동결정책의 선례를 대우조선에서부터 만들려던 정권과 대우재벌의 음모는 노사간의 임금교섭을 불가능하게 했고 급기야 귀중한 한 생명을 분신에 이르게 했다.

89년 5월 18일 임금교섭을 시작하던 대우조선 노조측에서는 시급 62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한푼도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동자간의 분열을 조장하고자 '상록회'라는 구사대를 조직했다. 정부 또한 맞장구치며 임금이 동결되지 않으면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침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5차교섭까지 시도하였으나 회사는 '임금동결 아니면 폐업하겠다'며 종래의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29일 박진석 열사는 반장이 나눠준 구사대 조직 '상록회' 가입 신청서를 찢어 버리고, "더이상 노동자와 노동자간의 싸움을 유발시키지 말라", "회사는 더 이상 노동자를 분열시키지 말라... 회사에서는 임금동결을 하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는데 임금동결을 하면 어떤가를 보여주겠다."며 분신하였다. 이후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노동자를 왜 울리느냐,

노동자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말하며 노동탄압과 사측의 횡포에 대한 울분을 감추지 않았다. 너무도 당연한 생존권확보의 문제를 이윤창출의 담보로 삼아 외면해버리는 정권과 재벌의 기만성 앞에 열사는 투병 중에도 "사용자는 각성해라 나는 죽지 않는다. 승리의 그날까지.."를 외치며 물러섬이 없었지만 89년 6월 결국 운명하였다.

◎동지를 생각하며

일천만 노동동지와 사천만 민중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치밀리는 분노로 우리의 동지들을 떠나라고 있습니다. 1989년 5월29일 거제 대우조선의 이상모 열사가 "원적복직, 임금인상 확실하게 쟁취하자"를 외치며 분신 사망했으며, 이에 앞서 "노동조합만세", "노동자만세"를 외치며 분신한 박진석 열사도 6월4일 6일간의 병상투쟁도 보람없이 운명했습니다.

87년 8월 경찰의 최루탄에 의해 살해된 이석규 열사의 무덤에 잔디가 채 피기도 전에 또다시 거제 대우조선에서 2명의 청년 노동자를 동시에 우리는 잃었습니다.

지난 3월 폭력 경찰에 의해 진압된 현대 중공업 투쟁을 기억하십니까? 현대의 반인륜적 테러와 정권의 가공할 폭력에 맞선 현중 노동자의 투쟁은 반사회적인 재벌의 횡포를 저지하고 노동자와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재벌과 정권에 단호히 일격을 가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켜나갑시다!

대우그룹과 정권에 대해 싸우고 있는 대우조선 노동동지에 대한 자원 연대투쟁을 전국에서 힘있게 펼쳐나갑시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노태우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킵시다.

〈전국 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의 성명서 中〉

◎유고글

【유서】

사용자는 각성하라.
1만여 조합원여러분
나는 죽지 않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회장님 불쌍한 노동자를 울리지 마십시오)

◎추모글

【글】

지역주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땅 거제도에는 거제 원주민들의 선조들이 뼈를 묻은 곳입니다. 이곳에 대우조선이라는 문명이 들어왔고, 문명은 경영주의 이윤창출을 위해 곧 우리같은 노동자를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거제에 망치소리 울리게 되면서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경영자의 무자비한 이윤추구욕에 억눌려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말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이익을 만드는 기계처럼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대외에 우리의 권익을 찾기위해 87년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었고 3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권익은 커녕 경영자들의 탄압은 더욱 노골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인 원직복지, 임금인상, 회사의 분열책동에 합거 분신한 열사의 죽음은 그간 있어왔던 수차례의 교섭과정과 구사특공대, 우리직장 수호결사대, 상록회라는 유령단체의 노동자 탄압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위협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분 열사의 영전에 명복을 빌며, 두분 노동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오늘 실천대회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거제도가 다같이 잘 사는, 우리들을 위한 거제도로, 장승포시로 우리 서로 힘을 모아 만들어 봅시다.

1989. 6. 6.

대우조선 공업(주)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이 종 대



- 1988년 9월 기아산업 노조 대의원 당선
- 1989년 1월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배재정씨 해고시 복직운동을 벌임
- 1989년 3월 25일 복직·임금인상 쟁취를 위해 투쟁, 노조 민주화를 위해 헌신
- 1989년 7월 3일 오전 11시40분 노조 사무실에서 부당해고에 항의하여 분신
- 1989년 7월 8일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89년들어서 회사측의 폭압적 탄압이 계속되었고, 노조 위원장에 출마했던 배재정씨를 이력서 누락기재를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위원장 유호영은 조합원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임금협상타결을 했으며, 이종대 동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7월3일 해고통보를 하였다. 이에 그는 해고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노조사무실에서 "나의 회생을 끝으로 더 이상 부당해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피맺힌 절규를 남기고 분신하였다.

◎동지를 생각하며

이종대 동지는 삼천리 자전거 이래로 기아산업에 20년간 몸담아왔으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결국은 물론이고 그 혼한 여름휴가 한번 가지 못하고 땀흘려 일해왔으며 몸이 아파 조퇴했다가도 기계가 고장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대로 달려나갈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민주노조를 만들려는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대의원으로 나서서 활동했으며 회사와 조합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었다.

그러한 이종대 동지는 휴일에 특근을 했다는 명목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다. 엄청나게 쏟아지던 주문생산에도 묵묵하게 일해오던 노동자 가족의 목을 친 것이다. 노동자의 20여년간의 피와 땀을 동지의 죽음으로 매장시킨 것이다.

◎추모글

【결의문】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탄압, 투쟁으로 분쇄하자!! 또 다시 한 노동자 동지가 죽음의 길을 며칠 앞에 두고 걸아가고 있다. 7월3일 낮12시10분경 기아산업 생산계획실에 근무하던 이종대 열사가 회사측의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여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한 것이다.

이종대 열사는 노조대의원으로 평소 어용노조 민주화에 전심전력을 다하던 분으로서 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긴 회사측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동지를 해고한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다.

빈털털이에 오직 몸뚱아리 하나뿐인 우리 노동자들과 가족들에 있어서 해고는 곧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직장에서 쫓겨나면 달리 생계를 이을 방도가 막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생사존망이 달린 해고를 기업주들이 노동운동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번 이종대 열사 해고의 경우도 민주노동자세력을 기아산업 내에서 압살하고 어용노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회사측의 악랄한 술책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기아산업은 수십년간 어용노조를 유지시켜 오면서, 노동자의 이익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헌신적인 노동자들을 해고해왔으며 그래서 노조민주화를 목살하여 기아노동

자 전체를 억압해 왔다.

이번 이종대 열사 분신사건의 경우도 기아산업 노조 현 집행부가 보여준 태도는 철저히 반노동자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회사측과 야합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이종대 열사의 부당한 해고에 도장을 찍었다. 뿐만 아니라 이에 흥분하여 항의하는 열사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며 분신을 조장 내지는 방조하였다. 또한 분신 이후에도 가족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열사가 입원한 병원을 점거하고 병원주위를 공포 분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현 집행부의 어용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여 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경찰은 7월4일 8시40분경 병력을 동원하여 병원정문을 봉쇄하고 열사를 간호하던 가족과 동료 47명 전원을 광명경찰서로 연행해 갔으며 현재도 정문을 지키며 동료 노동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이 노사문제에서 편파적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적인 일이지만 공공기관도 아닌 병원의 출입을 특별한 사유없이 통제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제한이며, 주거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며, 전 노동자에 대한 도발행위로 단정짓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이번 이종대 열사의 분신과정에서, 그리고 현재 가족과 주변 동료에게 가해지는 억압속에서 회사와 어용노조, 그리고 경찰이 삼위일체가 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발견한다.

회사측은 이종대 열사의 분신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고 전 노동자앞에 사죄하라!

그리고 해고된 모든 조합원을 즉각 복직시켜라!

유호영 현 어용 집행부는 죄과를 반성하고 즉각 사퇴하라!

경찰은 즉각 병원에서 철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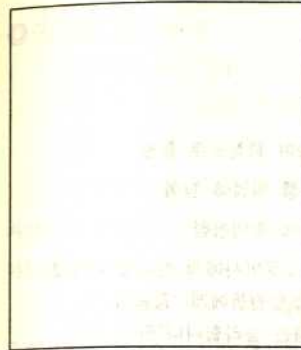
그리고 이번 사태가 공정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아울러 지금의 대동화학, 태우교역, 대우조선 등에서 보여지듯이 공권력을 남용한 마구잡이식 노동운동 탄압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하여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1989. 7. 5. 서울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최성조

墓



1989년 7월 13일 남성 흥진 노동자로 '무노동무임금 분쇄 결의대회' 참가로 불구속

1989년 8월 2일 구사대 폭력으로 구타당하여 실신 (2차례 뇌수술)

1989년 8월 5일 오후 10시40분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00여일간의 투쟁을 전개하던 남성 흥진은 파업기간 중에 회사측이 협상을 회피하면서 정상운행을 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구사대를 동원하여 공공연히 배치를 하고, 시비를 걸어 톱과 칼을 들고 위협하자, 이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부상당하였고,

5월 2일 총파업을 시작하자 회사측은 구사대를 구성하여 조합 사무실에 난입, 노조 사무실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노조간부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동을 했다. 이에 최성조 동지가 회사 건물 전등을 켜라고 항의하자 각목과 쇠파이프로 무차별 폭행하여 최성조 동지가 실신, 운명하였다.

강 현 중 (당시 26세)

墓 부여 선산



1963년 4월 27일 충북 음성 출생
 1981년 10월 5일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 중퇴
 1987년 12월 5일 경동산업 입사
 1988년 5월 4일 <디딤돌>이라는 친목회를 구성하여 회장으로 활동
 1989년 8월 17~30일 경동 노조 민주화 투쟁 파업에 참여
 1989년 8월 31일~9월 4일 회사의 부당징계조치에 항의농성
 1989년 9월 4일 노무이사와의 담판이 결렬되자, 노무이사에게 신나를 끼얹고 함께 분신한 뒤 불붙은 몸으로 조합원들에게 "경동의 동료들은 싸워 이깁니다" "노동자는 승리합니다"라고 절규
 1989년 9월 9일 한강 성심병원에서 운명

김 종 하 (당시 28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1961년 8월 출생
 1978년 동계중학교 졸업
 1979년 서울 성동구 시티즌 시계 입사
 1985년 인천 경동산업 입사
 1989년 4월 임금인상 대책위원으로 활동
 1989년 5월 <디딤돌>친목회에서 적극적 활동
 1989년 8월 31일~9월 4일 <디딤돌> 친목회 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여 농성투쟁 중 분신
 1989년 9월 15일 한강 성심병원에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경동산업 노동자 21명은 89년 회사측이 사내 친목 씨클인 <디딤돌> 간부3명을 일일차집을 열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데 항의, 89년 8월31일부터 복지관 4층옥상에서 농성을 계속해 왔다.

89년 입투에서 평조합원대표로 활약하는 등 평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 서왔던 사람들이 주축이 된 디딤돌 친목회가 8월27일 해고 노동자 돕기 일일차집을 개최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디딤돌 회장 등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회사측은 농성자들의 대화요구를 거부하고 매일같이 구사대 200여명을 동원하여 폭력을 자행했다.

어처구니 없는 구실로 해고를 획책하며 가족들마저 야수처럼 짓밟는 관리자들을 보며 농성자들은 마지막으로 담판을 짓기 위해 [징계사건]의 주모자인 강의신 노무이사 실로 간 것이다.

자신들의 마지막 징계철회 요구마저 태연스레 묵살하며 오히려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구속을 시켜버리겠다"

는 강의신 이사의 뻔뻔스런 모습을 보고, 격분한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서 신나를 뿌리고 할복·분신 항거한 것이다.

◎동지를 생각하며

【동지가 남긴 말】

강현중 동지의 유언

순수한 것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자본가 즉 돈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위하여 우리 노동자들의 뼈와 살을 갈아먹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의 사상, 자기들의 체면은 중요하고 우리 조합원들의 생명은 아무런 생각없이 앗아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자본가의 세상이 싫어 죽음을 택합니다.

부디 조합원 여러분의 세상, 노동자의 세상의 오길 기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김종하 동지의 유언

"경동동료들은 싸워 이깁니다. 노동자는 승리합니다!"

◎추모글

【편지】

이젠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오빠에게!

아직도 이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빠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편지를 쓰게 되어 무척 고통스럽다. 왜 나의 오빠가 죽어야만 했나.

오빠는 죽음을 원하지 않았다. 그 반대로 인간적인 삶을 원했었다.

도대체 왜 기업주 당신들은 얼마나 많은 부를 원하길래 이제 29살밖에 안된 우리 오빠를 죽음으로 몰고 갔나요. 최경환 당신은 우리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슬잔을 기울이며 노동자의 죽음을 비웃으면서 웃고 있겠죠. 오빠가 이 세상이 노동자의 세상이 되는 것을 못보고 눈을 감았다는게 너무도 원통하고 분해요.

몇 날이라도 더 살았더라면하는 내마음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일까요. 살아서 복치는 오빠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너무도 허무해요.

오빠하고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오빠

의 생각은 어쩔고, 나의 실력이 좀더 나아지면 오빠하고 풍물을 치고 싶었는데.....

오빠!

오빠의 뜻이 헛되지 않게 동생도 열심히 뛰거예요.

반드시 우리들의 세상이 옮겨예요.

오빠의 죽음이 있는 한

<김종하 동지의 막내동생 김미정씨가

오빠에게 쓴 마지막 편지>

【추도의 글】

어찌 벌써 가신단 말입니까.

한 많은 딱음쟁이 10년 세월을 타는 불길로 살라 버리고, 구만리 창공을 훨훨 날아 해방의 세상 찾아 달려 가셨나니까.

열사여! 우리는 몰랐읍니다. 당신이 몸까지 살라 캄캄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줄 우리는 진짜 짐작도 못하고 있었읍니다. 당신은 "돈 많은 자본가들이 힘없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짓밟는 이세상이 싫어서 나는 간다" 그렇게 유서에 쓰셨읍니다. 그토록 당신 가슴에 자본가의 착취에 대한 증오가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는 줄 우리는 미처 몰랐읍니다.

참으로 당신은 살아있는 우리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게 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여 결근 한번 없었고,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앞장서서 투쟁했던 열사. 그 성실하고 전투적인 열사의 모습은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던 동료들을 이끌던 등불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마지막 가는 길에서 조차 우리의 앞길을 훤히 밝혀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일 것입니다.

강현중 열사여! 열사와 함께 노조민주화에 관해 고민하고 슬잔을 기울이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지금 운명을 달리했다는게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한때 당신은 지긋지긋한 공장일을 때려치고 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며 장사하셨죠. 그러다 또다시 배운 도적질이라고 딱음쟁이 생활로 돌아와 장사 밀천을 모으던 중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깨우치고, 결국 디딤돌이라는 강력한 노조민주화세력을 결성하셨죠. 그러나 강력한 디딤돌은 그만큼 강력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어떤 부당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당신은, 탄압에 맞서 싸우다 결국 오늘 이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읍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당신의 두아들과 젊은 아내는

어찌 살아가라고 찬란한 젊음을 빼앗아 가시나이까.

강현중 열사여! 그러나 우리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아직도 최경환 사장님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공권력을 동원해 또다른 불상사를 불러 일으키려하고 있으며, 구사대를 조직해 끊임없이 농성 중인 동료들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열사가 죽음으로 일으키려한 경동의 민주화를 오히려 싹조차 짓밟아 버리려는 지금 우리는 또 죽을수는 있어도 질수는 없다는 각오로 기어코 열사의 뜻을 지켜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 열사여! 일어나소서! 당신은 죽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몸은 죽었으나 그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증오로, 서릿발처럼 곤두선 피맺힌 한으로 착취의 무리, 압제의 무리를 모조리 쓸어 버리고, 해방의 깃발 휘날리며 힘차게 달려오소서!!!

경동산업 해고노동자

【시】

경동산업 해고 노동자

강현중, 김종하 동지여!
그대 의리있는 노동자로
두아이,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명절때면 선물꾸러미 손에 들고
고향찾아 부모형제 만나고 싶었다.

그러나 저들은
그러한 당신의 소박한 꿈을 산산히 부서어놓고
수입개방이다. 원화절상이다.
쏟개, 간까지 빼아가고 내어주고

그 대가는
바로 어용노조와 노동자 착취

동료들의 고통에 날 밝히고
불의와 타협할 줄 몰랐던 그대
저들의 있는 한
나 하나의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기위해
디딤돌이 되었다.
가만히 당하고 있는 한
저들은 아무것도 내어주질 않는다.
더욱더 빼앗아가고 말 뿐이다.

깨어나야 한다! 일어서야 한다!
단결이다! 투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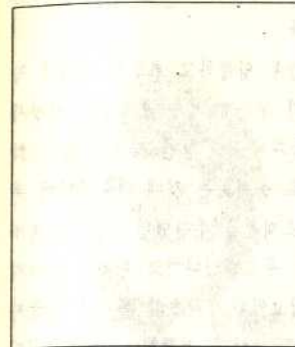
그대
성난 노도되어 휘몰아쳤다.
기겁한 저들은
구사대 백골단 동원하여 미친 개처럼 날뛰었고
무릎꿇고 굴복하라는 저들의 비웃음과 오만함에

그대 우뚝서서 온몸으로 타올랐다.
결코 꺾일 수 없는 천만 노동자의 분노와 자존심을
그대 그렇게
몸을 살라 지키었다.

<영안실에서>

이 재 호 (당시 25세)

墓



1964년 5월 전북 부안 출생
부안국민학교 졸업
부안중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후 가정을 돕기 위해 서울로 상경, 표구제작 계통의 회사에서 노동자 생활을 시작
1988년 1월 협신사 입사
1989년 10월 29일 노조재건 활동 중 피살

◎사건경위 및 의문점

노조재건 활동중 피살되었는데....

지난 89년 10월29일 0시40분경 인천 주안 4동에서 노조관련 상담을 마치고 귀가하던 협신사(액자제조업체, 사장 이희천) 노조원 이재호 동지가 등기에 턱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에 경찰은 단순히 다투다 사망한 폭행치사 사건으로 종결코자 하였으나, 이재호 동지가 그간 회사측에 의해 파기된 노조를 재건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일해오다 끊임없는 노조탄압의 협박속에서 많은 의문점을 남긴채 사망함으로써 동료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도 경찰에 정확한 사인규명을 요구하였다.

당시 나온 경위서를 통해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장 이희천은 군 인사제 상사로 예편한 뒤, 동생이 설립 운영하던 이 회사를 강탈(쇠사슬로 묶고, 폭행하여 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함) 8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채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였다. (유급휴일은 3.1절, 광복절 이틀 뿐이며 상여금 200%에 생리 월차휴가도 전무하고, 작업복조차 지급 안함) 이에 항의라도 할라치면 사장이 고용한 폭력배에 가까운 관리자들이 서슴없이 폭력으로 응답하는 실정에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89년 2월 27일 마침내 노조를 결성,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온갖 폭력을 동원해 노조탄압을 일삼고 협상에는 응하지 않았다.

사장이 직접 농성장에 들어와 폭행·감금·감시하고, 윗도리를 걷어 허리에 찬 가스총을 보여주며 "내가 이런 사람이다. 집에도 가스총이 더 있다. 네까짓 것들 한놈 죽어도 까딱없다. 내가 민정당 부위원장이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머리에 겨누기까지 하는가 하면, 제2공장 사장 장유환은 노조 사무장을 폭행해 3주간 입원치료를 한일도 있었다. 이러한 상상을 초월한 폭력과 반인륜적 행위로 마침내 노조간부들을 강제사직, 부당 해고 시킴으로써 노조를 실질적으로 파괴하기에 이르렀으나 이재호 동지를 비롯한 협신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7월에 접어들면서 다시 노조 재건의 기치를 쳐들었고, 회사측은 다시 탄압의 고삐를 조여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호 동지 등 노조재건 위원들은 주안 노동사목인 '내일을 위한 집'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문제와 노조 재건방안 상담을 하며 조언을 받아왔고, 피살 전날인 10월 28일(토)에도 6시경부터 상담을 하기로 하였다. 노조 재건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회사측은 이날 화장실에서 최창욱 생산부장이 이재호 동지에게 "같이 살고 있는 임영순, 김도형(노조재건 중심인물들임)이 따로 이사 나간다는데 이사했느냐"고 '관심'을 표시했다고 하며, 이날 밤 9시 동료조합원 5명과 함께 상담을 끝내고, 술을 마시러 가기 전에 이재호 동지가 동료의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회사로 전화를 했다가 그때까지도 회사에 남아

있던 최부장과 통화를 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는 함께 술을 마신 사람 이외에 그와 통화, 대화한 사람은 최부장이 마지막임)

함께 상담은 동료 6명과 '내일을 위한 집' 간사 1명이 함께 주안역 뒤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12시 정각 경에 이재호 동지가 아무 이야기없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고(평소 이재호동지의 주량(소주3병)으로 볼 때, 소주 한병 정도로 취할 정도가 결코 아니었으므로 동료들은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음) 다음날 새벽 3시30분경 이재호 동지와 같이 자취하며, 함께 술을 마시다 늦게 들어온 김도영, 임영순 동지 자취방에 경찰이 회사 관리자와 함께 찾아와 사건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재호 동지의 피살 이후 경찰은 다른 가능성은 배제한 채 회사 동료들만 불러다 요식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분명한 목격자가 있는데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전단지 제작시 범인의 복장, 체격, 도주로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인근불량배와 시비끝에 피살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추정하였으며(5m 떨어져 있던 목격자나 인근 음식점, 공업사에서 썬음, 저항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함) 가족들에게 피살경위를 설명치 않고 술먹고 죽었다고 하며 사체를 화장토록 유도했고, 10월30일에는 전단 작성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재호 동지가 입고 있던 피문은 잠바를 세탁해 버렸다(혈흔, 지문, 시비의 흔적, 피살시 가격 방향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유력한 증거물임에도) 이는

범죄수사의 상식조차 무시한 잘못으로서 적어도 경찰이 사건을 우발적인 것으로 처리해 버리려는 선입관과 예단을 가지고, 노조탄압과 무관하다는 쪽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한편 회사측은 사건후 당황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바, 상식적으로 피살과 무관할 경우 종업원의 사망시 조의금도 내지 않고 회사측과의 무관함만 강조한 것은 회사측의 관련성을 역설적으로 웅변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뿐만 아니라 고인과 함께 노조조건을 추진했던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시키지 않고 사표를 유도하였다. 또 한가지 고인의 신원확인의 단서는 당시 입고있던 T셔츠의 흘려쓴 한글자 '협'자 위에 한자 '信'자로 쓰여진 것뿐이며 이것을 '협신'으로 해독하기가 쉽지 않고 협신사는 114로 전화번호 문의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두어시간도 걸리지 않아 회사측 관리자가 관할 파출소에 나타났다는 것은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재호 동지는 면식범이나 계획적인 피살(살해는 목적치 않았더라도 혼내려는)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2월 노조결성 이후 계속되어 온 무자비한 노조탄압, 그리고 본격적인 노조조건 움직임과 관련된 것임이 명백하고, 특히 공안정국 아래서 자행되어온 정부기관의 불법적 연행과 테러, 구속, 수배, 미행 등과 긴밀히 연관되는 것으로 인권유린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의 무법 천지성을 반증하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배주영 (당시 28세)

墓



- 1963년 경북 달성군에서 출생
- 1985년 경북대 국어교육과 졸업
봉화여고 부임
- 1987년 11월 안동교협 창립, 부회장에 피선, 부회장으로 활동중
청송지역 산골마다 찾아다니며 조직작업
- 1988년 12월 청송 영양교협 창립
총무부장 역임
- 1989년 8월 18일 해임 후 진보에서 자취하며 전교조 활동을 계속함
- 1990년 2월 19일 연탄가스 중독으로 운명
- 1991년 2월 23일 유교집 '그 숨결 남아 아직 청송길은 푸르는데' 출간

◎동지의 삶과 죽음

85년 경북의 봉화여고에서 교직의 첫발을 내딛은 배주영 동지는 모순투성이인 우리 교육현실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헌신과 희생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비록 현실이 동지의 이러한 노력마다에 벽을 만들곤 했지만 동지는 끝없는 자기성찰과 각성을 통해 참교사로 서기 위한 노력을 거듭했다.

동지는 87년 교사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교사로서의 활동범위를 개인에서 학교전체의 문제로, 그리고 드디어는 지역사회 전체와 나아가서 그보다 더 큰 대권력과의 관계로 파악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안동까지 뛰어다니게 된다.

동지는 학교 소모임 건설과 청송교사협의회 창립을 위해 뛰어다녔고 88년 12월 청송교사협의회가 창립되자 교협의 살림을 맡아보면서 활동하다 해직되었다. 그러나 동지는 해직의 괴로움을 간직한 채 굳건하게 활동해 나갔다. 가르치던 제자들도 매일매일 찾아왔다.

하지만 동지에게도 힘든 순간이 있었다. 한번은 찾아온 제자들이 떡볶이집으로 끌고 갔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만이라도 좋으니 다시 한번만 교단에 설 수 있다면 좋겠구나"고 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도 잠깐, 밤이면 동지는 참교육 물품을 배낭에 가득 담고 이 산골 저 산골을 누비면서 선생님들을 찾아다녔다. 그 가방 속에는 참교육의 복음이 가득

들어 있었다. 끊임없이 탈퇴한 동료교사를 부여안고 구석구석 전교조의 씨앗을 뿌려나갔다.

90년 2월 19일 열여섯명의 교사가 해직된 청송여중고의 졸업식에 해직된 교사들과 같이 참석하기로 한 동지는 끝내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동지는 평소 즐겨불렀던 "장막을 걸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의 노래가사처럼 이 땅의 장막을 걷고 참교육의 씨앗을 뿌리다 끝내는 그 자신마저 참교육의 불씨로 내던져졌다.

동지의 죽음은 최초의 전교조장으로 치러졌다.

◎동지를 생각하며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마친 누이야
막내야, 이제까지 간추려온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할 길이 없구나, 누이야!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마친 누이야, 언제나 환한 웃음으로 집안의 시름을 덜어주던 우리들의 누이야, 자라면서 자랑이고, 죽어서도 자랑으로 남은 사랑하는 우리들의 누이야, 여리고 여린 몸으로 철벽 같은 장벽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분노하고, 투쟁하고, 넉넉한 사랑을 공부하던 우리들의 듬직한 동지여! 살아 있는 부끄럼을 한 겹씩 한 겹씩 벗어던지고 너를 향한 그리움 땀에 밤잠을 뒤척이게 하는 나의 누이야! 지금은 흙이 되어 묻혀 있어도 역사의

진보를 믿던 아이야!

언젠가 반드시 올 해방의 날, 가슴속에 담아 담아
참 스승의 산실이 될 전교조, 전교조 깃발 속에 하나의 울
곧은 날실로 살아오는 우리들의 누이야. 먼훗날 우리의 후
손들이 선남선녀 짝을 지어 동산을 찾을 때, 어여쁘고 당당
한 산새 되어 참 스승이고자 했던 모든 선생님들의 피와 땀
인 민주화의 선봉 전·교·조, 전교조의 전설을 이야기 해
주려므나.

1990년 1월 5일 막내를 품고 살아가려는
둘째 오빠가

◎유고글

【일기】

2월 3일

감정이 예민해지고 여러지는 요즘이다. 무슨 일에도
조그마한 자극만 받아도 눈물을 흘린다. 서럽고, 애뜻하고,
그립고, 막막하고..... 내가 서있는 자리는 어디이며, 하고
있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나이 스물여덟, 교직 경
력 겨우 4년 6개월 만에 해임이라. 도대체 나는 얼마나 '올
바른 교육'을 해왔던가. 교육, 교직, 노동자, 학생들, 지난
시간들을 스스로 실패라고 생각하는 지금 나는 과연 무엇
을 해야 하는가? 사람 사는 일이 칼로 무 배듯 딱딱 나누
어지거나, 흐르는 물모양 굽이굽이 줄줄 이어 내려가진 않
는데, 무엇을 경계하고, 어떻게 연대해 나가야 하나? 한 인
간—물론 스물 몇 해를 이 땅의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 이
땅의 일반적 가치를 터득한—의 자존마저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는 지금. 그래, 공부하고 열심히 뛰어나고, 그
때그때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수밖에 없겠지. 선생님, 그래
교단에 서고 싶다. 너희들도 보고 싶다. 같이 떠들고, 웃
고.....

지금의 가장 올바른 인간의 모습을 다듬는 시간이
다. 사랑을 배우고 깨우치는 시간이다. 선생으로서의 모든
자질을 갖추는 단련의 시간이다!!!

【친구에게 보낸 글】

경숙아,

참으로 어설피게 살아온 4년 4개월, 성실하고 인정
넘치는 선생이 못되었는데도 나는 문제교사가 되고 말았구
나. 차라리 불성실이나 자질을 못 갖춘 이유로 쫓겨난다면

덜 속이 상할 것 같다. 쫓겨나야 한다는 상황을 맞이하고서
야 못다 가르치고, 못다 배운 것들에 대해 안타깝고 속상하
다니 나는 늘 왜 이렇게 뒷북만 쳐대는지 모르겠다.

잘은 모르겠지만, 뉴스에 나오는 데로라면 방학 전
에 일이 생길 테지. 약간의 갈등과 고민이 있긴 하지만, 먼
앞날을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기꺼이 징계를 받아야겠
다는 생각(각오)을 한다.

그 동안 소식 못 전해 미안하다. 가정을 꾸려나가는
네 노고도 생각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다. 그저 편하게 '잘살고 있으려니'하고 스스로 위로하면
서 말이다. 글 쓰는 게 왜 이리 힘이 드는지 버리고 벌려
겨우 한 통의 편지 쓰는 형편이다.

7월 5일 박선생과 결정적으로 말을 시작한 지, 만
일 년 되는 날이다.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집안의 반
대에 부닥치며 일 년이 지나는가. 이래저래 상황은 더 험
악해진다. 시국도 그렇고,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쫓겨나면
니네집 신세 좀 질 수 있겠니? 지금 최대 걱정이 '아이고,
어디서 사노?'다. 집에 들어가 아버지 역정을 들을 생각하
면 앞이 캄캄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견뎌내야지 뭐.
어때 내가 살아온 시간들은 그런 대로 순탄한 편이었으니
내 의지로 살아가는 데 이것 고생쯤이야 뭐, 그자! 다음주
쯤 집으로 전화 한번 할게.

몸 성히 잘 지내라.

◎추모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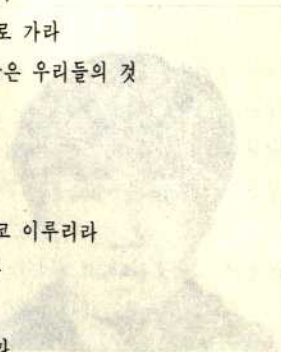
눈을 뜨고 보아라

다시는 볼 수 없구나
말할 때면 말갈계 물들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배낭 하나 짊어지고
명동성당으로
경북대학교 교정으로
굶주림과 최루탄 눈물 속에서도,
밤줄 잡아 비트는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참교육 그날 위해 투쟁하던
그 험찬 모습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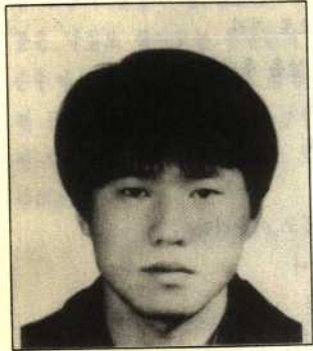
아, 그날은 꼭 오련만
'전교조 합법성 쟁취'라는
다하지 못한 꿈을 안고
그대는 구천 어디를 헤매이는가
발 닿지 않는 지상에
한으로 맺혀,
눈 감지 못하고 떠난 그대
차라리 눈을 감지 말아라
눈을 뜨고 보아라
시퍼렇게 살아 우리들을 보아라
이 민족 나아갈 길

한 발 두 발 어떻게 다지며 가는가를
이제 그대 가시는 곳
안락한 천주의 품이라
그대는 부디 기쁨으로 가라
서러움은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의 것
우리들의 무기이니,
그대 뒤편 불태워
남김 없이 불태워
참세상 그날을 기필코 이루리라
다시는 볼 수 없구나
그대 빛나는 웃음을
그러나 우리는 보리라
전교조 깃발 속에 영원히 웃고 있을
그대 모습을.



강민호 (당시 24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 1966년 2월 16일 전북 출생
- 1981년 2월 도봉중학교 졸업
- 1984년 동성고등학교 졸업
- 1985년 3월 한신대 경영학과 입학
- 1986년 10월 건국대 애학투사건으로 구속, 집행유예로 석방
- 1987년 12월 구로구청 부정개표 사건으로 2년 선고
- 1988년 10월 특별사면으로 석방, 복학
- 1990년 3월 28일 대동전선 입사
- 1990년 4월 4일 야간작업 중 기계에 휘말려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한신대학 시절 동지는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많은 동료와 후배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아왔다. 그는 이 땅의 구체적 현실에 눈을 뜨게 되면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왔으며 구로구청 부정투표합 사건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투쟁하다 2년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그는 노동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졸업장을 거부하고 노동자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서 받아들여기로 작정하고 노동현장으로 뛰어 들었다.

동지가 다니던 공장은 약 15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대동전선(사장 이재봉, 민자당 안산 웅진 지구당 수석부위원장)이라는 회사로서 12시간 주야 맞교대 근무체로서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동지는 입사한지 7일째 되던날 야간 작업을 하다가 연신기 주위에 있는 폐선을 치우기 위하여 1.5미터 되는 연신기 기계 사이의 통로를 지나다가 메고 있던 폐선이 회전하는 연신기에 휘말리면서 몸도 따라 들어가 비명 소리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운명하였다. 이와 같은 참변은 기업주가 안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에 대해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예방할 수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강민호 동지의 사망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산재왕국으로 소문나 있다. 88년 한 해 동안의 노동부 통계

를 보면 일천만명의 노동자 중에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5,743,970명인데 이중 142,329명이 다쳐 불구가 되었고, 1,925명이 사망했다. 8,000명의 직업병 환자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노동자는 산업현장에서 6년마다 6.25와 같은 큰 전쟁을 치룬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노동부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부분까지 합치면 그 수는 엄청난 것이다.

이 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저 참혹한 산업전쟁터에서 새파란 청춘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이윤착취에 눈이 먼 자본가들이 신출내기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는 시간조차 아까와 하면서 꿈많은 청춘을 잡아먹고도 눈물 한방울 흘리기는 커녕, 빈소를 회사안에 차라지 못하도록 회사 정문마저 용접해버린 자본가 세상!

동지는 이러한 현실을 뒤로 한 채, 말없이 떠나갔다.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없는 노동자 세상으로.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모든 고통과 억압, 착취가 사라진 새 세상을 향하여.

◎동지를 생각하며

「7일만에 스러진 '참노동 꿈」

졸업 한 학기 남기고 공장취업 대학생 일하다 숨져

노동자의 삶을 살고자 노동현장에 뛰어 들었던 한 대학생이 미처 자신의 꿈을 피우지 못한 채 스러져 갔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추구했던 그는 끝내 열악한 노동조건에 희생되어 7일 동안의 노동자로서의 짧은 삶을 마감했다.

그의 분향소가 차려진 경기도 안산시 고려대부속 안산병원 영안실에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대학친구들과 노동자들의 발길이 나올까 계속되고 있다.

한신대 경영학과 4학년에 다니던 강민호(26)씨가 연약한 손으로 공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8일. 강씨는 자신의 학력을 '고졸'로 낮추고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있는 대동전선(주)에 들어갔다. 고압류전선을 제작하는 이 회사에서 그는 하루 12시간씩 알루미늄선을 꼬아 전선을 만드는 생산1과에서 조수로 일하며 일을 익혀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틀째 야간 근무에 들어간 지난 4일 새벽1시경 강씨는 통로에 남아 있는 알루미늄 폐선을 공장 한구석으로 치우기 위해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연신기 옆을 지나다가 들고 있던 알루미늄선 가닥이 연신기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정말 손 쓸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급히 달려가 기계를 켜지만 그때는 이미..." 동료노동자들에 따르면 높이 1.5m, 폭 10m 크기의 연신기가 1분에 60~70회 정도 회전하는 동안에는 바람이 휘휘 날릴정도여서 경력자들도 근처에 가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그의 죽음은 곧 현장노동자들이 숙명적으로 마주쳐야 하는 위험이기도 했다.

2남2녀 중 장남인 강씨에게 노동현장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 지난해 9월부터 공장기숙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함께 자취생활을 했던 후배 반경석(25)씨는 "졸업을 한 학기 남겨놓고 진로를 생각하던 민호형은 자신이 장남이라는 사실 등 집안문제로 무척 고민했다"면서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죽고 싶다는 평소의 꿈을 굽히지 않았었다"고 전했다.

대학생활을 통해 사회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한 강씨는 부모에게 어쩔 수 없는 불효를 저질러야만 했다. 그는

86년 10월 건국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87년 12월에는 다시 구로구청 농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이듬해 10월 개천절 특사로 석방됐다.

"건국대 사태 때는 아들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들을 찾아 최루탄 연기 속을 헤매다녔지요. 아들이 다시 마산 교도소에 수감된 뒤로 '민가럽 어머니'가 되어 다른 구속자 어머니들과 함께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도록 집회를 쫓아다녔고요."

'따뜻한 밥 한끼'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아들을 떠나보낸 것을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 김혜숙(55)씨는 "지난달 25일께 집에 들어와 후배가 졸업한 뒤 공장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면서 현재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자세히 설명할 때만 해도 후배애기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면서 "차라리 마산 교도소에 있는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릴 때가 더 행복했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같은과 친구 박관우(26)씨는 "한번은 집에 며칠째 들어가지 못해 돈이 없는 것을 뵈면 아는데도 굶고 있는 친구를 위해 어디에선지 돈을 구해 라면을 사주기도 했다"며 울먹였다.

"친구는 멀리 갔어도 없다 해도/ 그 노동자 별빛속에 빛나네/ 내 맘속에 영원으로 살아살아/ 이 어둠을 부수리 부수리"

생전에 그가 즐겨 불렀다는 노래 <친구>가 친구들의 입을 통해 분향소 가득히 울려 퍼졌다.

<한겨레 신문 1990년 4월 8일 '동네방네'란의 보도자료>

◎유고글

【동지의 글1】

80년대, 정말로 파란만장 했던 10년이였다.

수천의 광주 영령들의 피로 시작된 80년대는 87년 민주항쟁 등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드높았던 시기였다. 수천의 민주동지와 수천의 영령의 피로 얼룩진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반만년 유구한 역사의 어느 시기보다 가장 뜨거웠고 가장 격동에 찬 10년이였다.

80년대의 가운데인, 1985년 나는 '삶이란 무엇인지',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여 5년여간 정말 치열

하게 고민하고 보람되게 살아왔다. 그 이전의 20년 훨씬 이상으로 뜻 깊게 살아 움직이며 격동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확신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낭만에 부풀어 첫문을 통과한지 5년. 이제 나는 5년전의 기대와 희망에 마냥 들떠있던 내가 아니다. 기대와 희망은 같을 지 몰라도 그 내용은 엄청난 질적 진보, 아니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4년, 아니 5년간의 남파는 좀더론 기간의 활동을 한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은 새로운 각오를 하게 하는 뜻 깊은 시간이다.

5년간의 활동을 마감, 정리하고 새롭게 다가 올 공간을 생각하며 내가 할 일들을 준비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과는 다른 것이다. 아니 너 무나 다를 것이다.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 아직 경험 하지 못한 것이기에 약간의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곳은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을 살아 갈 나의 삶터이고, 살아 갈 장소이다.

나는 평생을 노동자로서 개척하며 살아 갈 것이다. 역사의 진보적 계급인 노동자로서, 선배동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노동자로서 한평생을 후회없이 살아 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내에게는 수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지난 시기 나약했고, 우왕좌왕했던 나의 사고들을 다시 정리하고 대망의 90년대를 힘차게 맞이하기 위해 나는 이 순간 준비한다.

지난날의 모든 나약함을 과감히 버리고, 민중사회를 위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한 치의 후회도 없이 오로지 앞만을 향해 전진할 것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결의한다.

한평생 후회없이 싸우다 가련다.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반동의 무리들을 쳐단하는 투쟁의 최전선에 서서 싸우다 자랑스럽게 가련다. 우리가 승리하여 해방된 사회를 본다면, 서로의 손을 잡고 조국해방 만세를 힘차게 부를 것이다.

그 날이, 해방된 그 날이 멀지 않아 우리에게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힘차게 싸워 나가자!!!

격동의 80년대를 정리하고 대망의 90년대를 맞이하는 새해의 순간에서...

(이 글은 동지가 1990년 새해를 맞이하여 쓴 것이다)

【편지】

부모님 보십시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제는 완전히 화창한 봄이 왔습니다.

그 길고도 쌀쌀하던 겨울도 결국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어쩔수 없이 물러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넣어주는 봄에 의해 압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염원이며 희망인 민주사회를 자랑스럽고 조화롭게 모든 인간의 의지를 담고 굴러가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기들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막는 무리들도 결국은 겨울이 봄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듯이 정의와 진리를 위해 투쟁해 온 우리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정의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억압에 대한 투쟁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속에서 대다수 민중은 좀더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이 일도 민주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기필코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감옥생활이 바깥 보다 어렵고 힘든 점이 많다 할지라도 기필코 우리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난날의 생활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좀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즈음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저의 생각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이제는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생활을 계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달 말쯤에는 교도소로 이감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의미있게 잘 생활하고 있으니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민성이 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전해주고, 미현이 한테 잘 지내라고 전해주세요. 교도소로 간 뒤에 접견을 올 때 티2벌하고, 책을 갖고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도 열심히 투쟁하라고 전해주시십시오. 저는 이곳 감옥생활을 조국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성실하고 열심히 투쟁할 수 있는 강철같은 의지를 단련하기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알차게 생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누나, 미현이, 민성이 그리고 저의 가족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민주의 그날까지 절대로 흔들리지도 좌절하지도 않을 것을 부모님 앞에 맹세합니다. 건강히 지내십시오.

어버님과 어머니의 자랑스런 아들이 올립니다.

(조국분단 44. 3. 25. 서울구치소에서 민호 올림)

이영일 (당시 28세)



1962년	강원도 홍천군 출생
1981년	속초고등학교 졸업
1984년	방위병 입대
1988년 9월	자동차 정비 기사사 2급 자격증 취득
1989년 4월	(주)통일 입사
1990년 5월 3일	오전 8시경 회사측과 경찰의 지속적인 탄압에 분노, 항의하며 온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투신

◎동지의 삶과 죽음

이영일 동지는 1962년 강원도 양양에서 3남2녀중 둘째아들로 태어났고 81년 속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위병 근무를 마친 뒤 자동차정비 공부를 하여 89년 4월 (주)통일에 입사했다.

평소 내성적인데다 말수가 적었던 동지는 입사 당시에는 노동조합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가 89년 11월 조사통계부 차장과 90년 2월 노조대의원이 되면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강한 애착과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왔다.

(주)통일 재단과 경찰은 끊임없이 노동조합과 노조원을 탄압해 왔는데 칠년동안 투병생활 중에 있는 이영일 동지의 노모를 형사들이 찾아가 자식이 노동운동을 하고 있으니 그만두게 하라는 등 계속 협박을 통해 고통을 주었다. 이를 안 이영일 동지는 무척 괴로워했고, 어머니와 자식 사이를 이간질까지 하면서 노조를 탄압하는 비인간적인 탄압에 분노하였다.

90년 5월3일 오전 8시경 이영일 동지는 (주)통일 1공장 식당 옥상에서 지속적으로, 악랄한 노조탄압에 분노 항거하면서 온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과 함께 투신. 급히 창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0시 50분경 사망하였다.

경남 도경은 5월 4일 새벽 창원병원 영안실에 6백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영안실을 지키던 노동자 150여명을 연행한 뒤 시신을 탈취하여 대전 시립 화장장에서 화장하였으며 유족들은 유해를 충남 대청댐에 뿌렸다.

◎동지를 생각하며

천만 노동자의 가슴에 햇불을 질러

여기
못 다 이룬 29년 참노동의 꿈.
작업장 옥상에서 한 점 불꽃으로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진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어 좋다"
던,
"가진 놈, 권력있는 놈들에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해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해 보았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던
그래서 노동조합을 그토록 사랑한 우리의 형제
이영일 동지여!

취루가루 자른 5월의 하늘
작업장에 쏟아지는 햇살을 온 몸에 받고
아, 더러운 침탈의 땅
이 한 몸 불꽃으로 이 땅의 아침을 열지않으면 안되
게 하는구나,
어머니, 눈물을 거두세요.
저기 아버님의 모습이,
웃으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장하구나. 영일이
정의로운 너의 몸으로,
남을 위해 너를 불사른 그 혼으로 내 비석을 세웠구
나
장하다. 내 아들이
걱정말고 어서 가라
저기 물결이 보이지 않느냐
천만개의 불꽃이 물결치는 저기 평등한 세상이 보이
지 않느냐.
2천명의 더러운 군화발이 너의 시신을 탈취한 새벽
에 가라.
가라
천만개의 불꽃으로 살아
더러운 권력과 자본의 야합이 너를 화장시킬 때
'우리의 요구관철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는
골리앗 크레인으로.

우리의 신성한 작업장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더 이상 가진 자의 더러운 착취, 무력침탈이 없게
하자.
노동형제의 지시가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 없다.
그렇다.
더 이상 이땅에 이영일 동지가 없게 하자.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세상'
동지가 그렇게 바라던 세상이지 않는가
전.월세값이 없어 목숨을 끊는 우리의 형제들을
이제 동지의 불꽃.
천만 노동형제의 불꽃으로 살려내야 하지 않는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산이 뒤집혀도 목적지까지는
가야 한다.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한다."
어머니 밝게 웃으세요.
저기 보이지 않아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외치는 함성이
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남은 식수를 가진 자들의 더러운 얼굴에
던지며
일어서는 골리앗 크레인에서
백골단의 헬멧을 까부시고 달려나가는 서울에서
그리고 다시 골리앗 크레인 위의 아빠를 기다리며
외로운 편지를 읽어내리는 아이의 눈망울속에서,
울산으로, 울산으로 모여드는 4천만 형제들의
거대한 행렬이 보이지 않아요

이영일 동지여
꽃잎처럼 날리는 5월의 햇살을 받으며
고이 가소서
한 점 불꽃으로 살아나는 동지의 원혼은
오늘 천만 노동자의 가슴에 핏물을 질러
5월 광주에서
6월의 함성으로
7. 8월 대투쟁으로
이 더러운 세상 씻어버리고
노동해방의 그 날로 온 세계를 불태울 것을
천만 노동형제와 4천만 민중의 굳게 뭉친
가슴으로 맹세합니다.

◎유고글

【유서】

어머님

사는 것이 왜 이리 힘들니까

이 세상이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못살게 만드는
군요. 살아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힘들게 살아야 하는 사
람을 못살게끔 하는군요. 이런 생각이 저의 절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정지하게 사람답게 살아볼려고
발버둥치는 나에게도 여지없이 찾아오더군요.

착하고 정지하게 살아볼려는 사람을 악하고 분노하
게 만들더군요. 그것이 저의 잘못입니까.

잘못된 것 잘못 돌아가는 것을 잘못됐다고 나쁘다고
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강직하게 살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한 평생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사는 아버님께
무엇보다도 부끄럽습니다.

어머님 옛날이 그러합니다.

잘 못먹고 잘 못입어도 인간다운 삶의 맛이 나는 세
상이 그러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
가 아닌 것 같더군요.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같이 어우러
져 사는 세상,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
다.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더럽고 치사한 세상에 살았다는 것 말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든 놈들을 저주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효도 한번 못한 저를 용서하세요.
영일 드림.

【동지가 남긴 기록들】

—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미신은 믿지 않지만 만약 혼이 있다면 원혼이 되서
라도 영원히 저놈들과 싸우겠습니다.

어머님, 형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및 조합원께
부탁드립니다. 저를 화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단 한줌의 뼈
라도 사내에 뿌려주세요. 영원히 통일자본가와 싸우고 싶습
니다. 통일 조합원 및 위원장님 조합을 영원히 새날이 올때
까지 지켜주세요.

—몇일 전에는 노무과 놈이 와서 저보고 몸조심
하라네요. 우습군요. 잘못하면 셋덩이라도 던질 뻔
했습니다.

저녁에는 고향집에 형사가 왔다 갔다는군요.

나만 못살게 구는줄 알았더니 부모형제까지
못살게 굴더군요.

—오늘은 노동절. 별다른 일은 없지만 좋다.

어둠은 찾아오고 비는 억수같이 오지만 이 어둠과
비도 막을 촛불과 우산이 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우산이
뒤집혀져도 목적지까지는 가야 한다. 반쯤가다 되돌아오면
더욱 더 비에 젖고 만다. 개인날 또다시 가야할 것이면 비
를 맞고라도 바람이 몰아쳐도 지금까지 온 것이 가까워서
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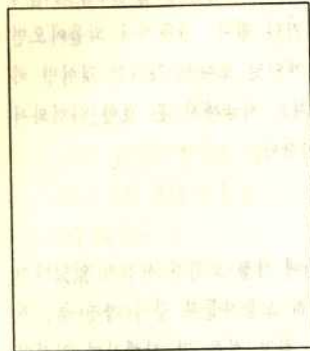
—어머님

전 제가 사는 동안에 가장 보람찬 시간이 있었다면
지난 1년간이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과 같이 가진 놈, 권
력있는 놈들에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해가며 인간다
운 생활을 해 보았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노동자의 단
체인 노동조합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남들은 나쁜 단
체인 불순분자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어머
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아버님을 존경하는 아들이 자랑스럽
게 생각합니다. 어머님 아들이 부끄럽거나 못난이라고 생각
지 마십시오. 정의로움을 외치다 잘못되어가는 것 잘되게
하려다 갑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여 존경합니다.

이런 분들은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보다는 없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 가난할지라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
에 더 많음을 안다. 노동조합 사람들 남을 위해 사는 인간
이 됩시다.

—통일이 되면 아버지 고향에 가보고 싶었는데 아
버님 뼈라도 고향에 물어드리고 싶었습니다.



- 1990년 5월 9일 해고
- 1990년 5월 14일 원직 복직
- 1990년 5월 30일 재차 해고
- 1990년 7월 8일 청도 천주교 성당에서 분신
- 1990년 7월 14일 투병 중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90년 5월30일, 회사측은 노동자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 14명 만으로 야간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를 지시하였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이를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 퇴근해 버리자 징계 위원회에 최태욱 동지를 회부하여 해고하였다. 그러자 회사측의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던 최태욱 동지는 90세의 고령이신 부모님을 남긴 채로 분신하여 유명을 달리 하였다.

◎동지를 생각하며

지난 7월14일 새벽 2시5분, 사랑스럽고 우직했던 우리의 아들 태욱이가 분신 자살을 시도한지 일주일만에 세 살된 아들 광민이와 아내, 고령이신 부모님을 남긴 채로 유명을 달리 하였습니다.

노조니 뭐니 처음에 만든다고할 때 이해를 하지 못하여서 극구 말렸으나 차츰 저희 식구들도 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해서 미약하나마 노조 설립을 도왔습니다.

고생하는 태욱이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서도 힘이 되어 주지 못하는 가족의 능력에 쓰라린 아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대구 순복음 교회에 수십, 수백만원의 현금을 내어서 자기 혼자 천당엘 가겠다고 하는 사장 김정숙이가 사원들 월급 몇푼 때문에 벌벌 떠다는 사실을 알고 노동법에도 합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다함께 잘

살아 보자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태욱이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사장이나 군청은 결코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편에 서서 노동자를 기만하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찾아볼려고 발버둥친 노력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태욱이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부인하고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된 최후의 방법이 분신 자살이었던 것입니다.

태욱이가 죽은 후 지금 청도군 내에서는 유가족들이 돈에 미쳐서 단돈 십원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이 불벌 더위에 시신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 어느 형제가 자기 아들이나 형제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하겠습니까?

관계 기관인 군청과 노동청은 근로자의 편에 서서 최선의 협조로 근로자의 권익을 지켜야 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정당한 노조 활동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땅에 죽음을 방법으로 해서 사용자에 항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990년 7월 21일 유가족,

청도 군민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중에서)



- 1960년 8월 14일 서울 출생
- 1980년 3월 성균관대 입학
- 1984년 10월 부천에서 노동운동에 투신
- 1989년 9월 4일 인노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구속, 집행유예로 출소
- 1990년 8월 7일 오전 9시 30분경 한양대 사회과학대에서 분신

◎동지의 삶과 죽음

최동 동지는 민주화열기가 한창이던 '80년 서울의 봄'인 1학년 때부터 학생운동을 시작하였다. 동지는 대학에 들어간 후 곧바로 성균관대의 대표적인 이념씨클의 하나였던 동양사상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이와 함께 성균관대 행서문학회에 들어가 문학수업을 하기도 했다.

80년 3월 성균관대에서는 전국 최초로 연일 수천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병영집체거부운동이 벌어졌다. 최동 동지는 이때도 중심적으로 활동하였는데, 3차입소까지 거부하고 마지막 남은 수십명 중에 속했다.

5.17쿠데타 이후 동양사상연구회 등의 진보적인 이념씨클은 비공개조직으로 움직여야 했다. 이에 최동 동지는 합법씨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심산연구회라는 공개씨클 결성을 주도한다. 심산은 성균관대의 설립자이며 반제반독재 운동가인 김창숙 선생의 호에서 따온 것이다. 81년 3월 창립한 이 씨클에서 동지는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동기들의 학습까지 지도해냈다. 그 당시 동지는 국문과학회에서 최메니옹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란혁명의 지도자인 호메니의 강렬한 인상과 지도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그리고 씨클에서는 '마동'이라는 칭호는 외모보다는 그의 정치사상이 탁월하고 논리전개가 칼같은 데서 나온 것이라 한다.

최동 동지는 83년 5월 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학내의 시위를 주도하다 구속되어 첫 감옥생활을 시작한다. 동지는 매우 엄격하고 차분하면서도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서울 환일고 재학 시절 동지는 친구들 사이에 '최동 장군'으로 불렸다고 한다. 등산, 낚시, 기타는 물론 십팔기까지 배운 동지가 동료들 사이에서 '대장노릇'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83년 시위주도 혐의로 최동 동지는 실형을 선고받고 9개월간 복역했다. 여동생 최숙희씨는 최동 동지의 최후진술 장면을 회고하며 "법정에 선 오빠는 정말 깨끗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인간적 승리, 도덕적 승리를 해야한다"는 구절입니다. 그순간 나도 꼭 오빠처럼 살아야지 하고 결심했었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의 유화조치를 맞아 최동 동지는 84년 2월8일 석방된다. 그때 감옥에서 출소한 학생들은 정부의 시혜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동지는 복학허용이 정부의 개량화조치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복학을 반대하고 노동현장에 투신하기로 결심한다. 이후 최동 동지는 89년 구속될 때까지 집을 떠나 부천의 월세방에서 지낸다.

84년 부천의 삼창정밀, 동광정밀 등에서 프레스공으로 일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최동 동지는 줄곧 부천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부천 삼정동의 (주)세일에 재단사로 취업하기도 했으며 동파이프를 제작하는 극동금속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최동 동지는 수형 전력이 있어 대규모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소규모공장이나 마찌꼬마를 전전해

야했다. 86년경부터는 신원조회가 엄격해져 라이프동상에 입사원서를 냈으나 전력이 발각되어 취업을 못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최동 동지는 그간의 현장활동에 대해 현장에 뿌리박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한 것은 자신이 노동자들보다 가정환경이 유복한 탓이라고 평가하고 이후엔 취업이 늦어지더라도 사상무장을 철저히 한 후에 진짜 노동자생활을 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86년경 동지는 반제동맹당 사건의 여파로 수개월간 도피생활을 했으며, 87년 6월항쟁 이후에는 인천지역 노동자연맹 준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대통령 선거투쟁에 참여했다.

88년 3월 창립한 인노회 결성에 최동 동지는 산과 역할을 한다. 인노회 조직활동은 동지의 정치적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 동지는 인노회의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선반공으로 다시 공장에 들어간다.

89년 2월 검찰은 6공 들어 처음으로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하여 인노회 관계자 6명을 구속했다. 인노회가 NLPDR을 이념으로 하는 지하조직으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관련자들은 공개적인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이라며 노동운동 탄압을 위한 용공조작책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백영엽 판사는 "인노회가 이른바 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기보다 노동운동을 위한 단체임을 인정"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검찰은 TK출신의 조희대 판사에게 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최동 동지는 이 사건으로 89년 4월28일 부천 심곡동 자취방 앞에서 치안본부 대공 3계 요원들에 의해 연행, 구속되었다. 이 무렵 동지는 도자기 공장인 부천 세라아트의 민주노조 건립을 위해 조합원 교육에 열중하고 있었다. 최동 동지는 연행된 후 묵비권으로 버텼으나 수사관들이 친구 결혼식 사진, 이삿집 나르는 사진 등 한달 이상 미행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30여점을 제시하자, 치밀하게 준비된 조직탄압 차원의 수사임을 간파하였다. 이에 치안본부 대공본실의 고문, 조작수사를 익히 알고 있는 최동 동지는 동료들이 탄압에 대처할 시간을 벌게하고, 취조에 불응하기 위해 자해를 기도했다. 취조실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짓기킨 것이다. 그러나 경찰병원에서 일곱바늘을 꿰매는 응급치료를 한 후 조사를 계속 받아야 했다.

최동 동지는 이후 약 20여일에 걸쳐 치안본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동지는 출소후 동료들에게 조사를 받는 기간에 수사관들이 교대로 취조하면서 잠을 안재우거나, 안기부에 넘기겠다는 식의 협박으로 잠을 못자게 해 자신의 수면기능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최동 동지는 연행 21일째인 5월19일, 정신적 압박감이 극에 달하는 수사과정에서 더 이상의 모략에 말려들지 않기위해 또다시 자해를 가했다. 이번에는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칫솔대를 부러뜨려 목부위를 찔렀는데 기도가 1cm가량 뚫리는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당시 경찰병원 담당의사는 가족들에게 주의깊은 관찰과 치료가 요구된다고 말했으나 최동 동지는 정밀검사를 받아보지 못하고, 경찰병원에서 외상치료 후 5월 20일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구치소로 넘겨진 이후 최동 동지는 수사과정에서부터 계속된 불면에 시달렸다. 그러나 동지는 이를 사소한 증세로 여기고 학생시절의 투옥경험을 살려 운동과 독서로 계획적인 생활을 했다. 한달 가까이 사회과학 신간서적이나 소설책, 바둑책 등 수십권의 책을 열심히 읽었다.

그런데 7월초에는 심한 발작과 실어 증세로 보름여 동안 고통을 겪었다. 주체할 수 없는 통증과 함께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말을 하는 등 의식과 행동이 유리된 증세가 뒤따랐다. 이같은 증세는 구치소 의무과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이후 나타났다고한다. 그 때문에 최동 동지는 자신의 불면증, 실어증이 단순한 심리적 불안상태가 아닌 약물투여에서 비롯되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약물투여의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가족들이 특별면회를 했을 때 동지는 "눈만 깜빡이고 말을 못했으며, 가끔 입을 강제로 벌리고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시늉을 했다"고 전한다. 책이나 신문을 전혀 못보는 등 증세가 악화됨에 따라 종로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세'라는 진단이 나왔다.

비정상적인 정신상태 하에서도 재판은 진행되었다. 최동 동지는 재판장에서 동료들에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무비 카메라로 감시를 당하고 있다" "수용 중인 독방에 분말가스가 투여된다" "내 몸에 AIDS균을 감염시켰다"는 발언을 하는등 심한 피해의식 상태에 빠져있었다. 동지는 심리과정에서는 거의 한마디도 못했다. 9월 18일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가 결정되자 "이건 음모다. 이들은 또 나를 이용하려 한다"며 극도의 공포에 떨었다.

출소 이후 최동 동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11월부터 1월까지 종로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으며 수전증, 기억력 감퇴까지 뒤따랐다. 동지의 모든 사고는 "자기가 탄압받은 것을 알아달라" "적들이 나를 무능력하게 만들었다"는 데 집중되었다.

마침내 4월28일에는 부천 중동에 자취방을 얻어 연탄가스로 자살을 시도한다. 최동 동지가 부천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것에 대해 동료들은 자신이 활동했던 노동현장에서의 '귀소본능'이라고 여긴다. 동지는 적십자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소 차분한 상태를 유지했다. 인노회 동료들을 만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진상을 밝혀줄 것을 호소했다. '천인공노할 치안본부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동지는 건강이 좋아져야 자신의 억울함을 폭로할 수 있다며 수영장을 다니거나 인근 뒷산, 한양대로 산책을 다니며 건강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호전될 기미를 보이던 최동 동지는 분신하기 얼마전부터는 상태가 다시 악화되는 듯 했다. 동지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내가 구속되기 전에는 괜찮았다" "지금 내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간다" "치분 들어간 이후 내 몸이 망가졌다"며 하소연했다. 동지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가족들은 아마도 이 점이 최동 동지가 죽음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동 동지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누구도 한마디로 단언하지는 못한다. 치안본부는 "구타 등 가혹행위는 절대 없었다"고 강변했다. 최동 동지의 담당 변호사 역시 육체적인 가혹행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최동 동지가 치안본부 대공본실 수사과정에서 병을 얻었다는 사실이며 잠 안재우기 등의 정신적 고문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최동 동지의 어머니는 "아들이 구속 이후 한달만에 백 팔십도로 바뀐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옛날의 우리 동이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상상을 못하겠어요. 반드시 죽음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80년부터 10년간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투신해온 최동 동지. 그의 죽음은 도덕적으로 승리하는 길을 선택한 이 시대의 양심적인 사람에게 가해진 부도덕한 정권의 압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리고 최동 동지의 죽음이 결코 패배적인 발상이 아님을 박형규 목사는 장례식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배자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굴복하며 살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고문의 후유증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의에 맞설 힘이 없었던 최동 동지는 무릎을 꿇기 보다는 마지막 싸움의 무기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박 성 호 (당시 29세)

墓



1961년 11월 25일 강원도 태백 출생
 1980년 태백 철암고등학교 졸업
 1989년 7월 1일 안산 금강공업 (주)에 입사
 1990년 8월 10일 노조결성시 노조부위원장으로 선출됨
 1990년 8월 30일 경찰의 진압에 의해 전신 70% 화상
 1990년 9월 11일 오후 7시 45분경 운명

원 태 조 (당시 37세)

墓



1953년 7월 7일 출생
 1989년 금강공업 (주)에 입사
 1990년 8월 10일 노조결성시 후생복지부장으로 추대
 1990년 8월 30일 경찰의 폭압적 진압에 의해 전신 80% 화상
 1990년 9월 18일 오전 6시 30분경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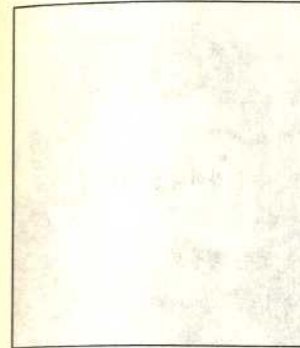
◎동지의 삶과 죽음

90년 8월30일 회사측이 경영부실을 이유로 무기한 휴업공고에 금강공업 노동조합은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후 안산 경찰서 정보과장이 농성장에 와서 협박을 하고 돌아갔으며 오후 4시경 조합원 60여명은 정문에서 연좌 농성중이었고, 15명의 조합원들은 회사측이 물건을 빼돌리려고 만들어 놓은 비상문을 지키고 있었다. 이때 공권력이 투입되어 경찰들이 조합원들을 에워싸고 협박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조합원 앞으로 경찰이 계속 포위망을 좁혀오자 부위원장(박성호)이 생수통에 담겨있는 신나를 몸에 붓고 "더

이상 가까이 오면 분신하겠다."고 하자 경찰 현장 책임자가 신나통을 손으로 치면서 주변에 있던 조합원들의 몸에 뿌려졌다. 그러자 사태의 심각함을 느낀 후생복지부장 원태조 동지도 이때 온몸에 신나를 끼얹었다. 이때 라이터를 들고 있던 부위원장의 손을 낚아채면서 순식간에 원태조 동지, 박성호 동지, 정만교 동지가 불덩이로 변했고(정만교 동지는 생존), 경찰은 소화기를 뿌리며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했다.

김 봉 환 (당시 53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1938년 12월 11일 출생
 1977년 12월 22일 원진레이온 입사 (원액2과 근무)
 1990년 9월 퇴사후 1차 쓰러져 말을 더듬기 시작
 1990년 11월 26일 사당의원에서 이황화탄소 중독 의증 및 고혈압으로 진단받음
 1990년 11월 27일 노동부와 회사측 요양신청 거부
 1991년 1월 5일 노동부로부터 요양신청서 접수 통보 받음
 1991년 1월 5일 오후 1시경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밤 10시 30분경에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김봉환 동지는 77년 원진레이온에 입사하여 갖 태어난 하나뿐인 딸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성실한 노동자였다. 그러나 입사 후 차츰 몸이 쇠약해지더니 급기야 CS2 중독 초기증상인 두통과 소화불량, 손발이 저리는 등 여러증상으로 83년 원진레이온에서 퇴사하였다. 그후 건물 경비등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던 중 두통, 마비증세에 시달리다 89년 쓰러져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하고, 원진레이온의 직업병 문제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자 자신의 병이 원진레이온 근무시절 생긴 것이 아닐까하여 90년 10월 진료를 받아본 결과 "이황화탄소 중독의증 및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런 과정으로 김봉환 동지는 자기의 병이 직업병임을 알고 원진레이온 회사측에 산재요양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황화탄소 중독의증 및 고혈압"이라는 진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지가 근무하던 원액2과가 유해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대로 요양신청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동지는 노동부에도 산재요양신청 허가를 요구했으나 노동부는 회사를 두둔하며, 접수 조차 거부하였다. 동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적인 싸움으로 마침내 91년 1월5일 노동부로부터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바로 그날 운명하였다.

◎동지를 생각하며

노동자, 시민여러분!
 어린 외동딸과 사랑하는 부인을 남기고 또 다시 한 노동자가 한뼉의 세상을 떠나갑니다. 김봉환 동지는 1991년 1월5일 돌아가셨지만 회사측과 노동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80여일 지나도록 편안히 눕지 못하고,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있다가 이제 영영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시신은 심하게 부패하였고, 사랑하는 외동딸이 충격을 받아 예전의 맑고 명랑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림을 걱정하여 고등학교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지는 이황화탄소라는 살인독가스를 마셔서 생긴 직업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회사측은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동지를 다시 한 번 죽인 것이고 우리 사회의 양심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직업병은 밖으로 나오면 공해의 원흉이 됩니다. 동지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며 우리사회의 건강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지의 죽음을 애도하며 노동 형제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봉환 동지는 죽었지만 (주)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주)원진레이온의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노동자의 목숨을 돈벌이의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두고 보라. 온 지역주민들에게 독가스를 먹이고, 노동자들을 직업병으로 죽이는 직업병 제조공장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온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산업재해, 직업병 없는 세상을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고……

오늘의 이 억울한 죽음을 내일의 힘찬 투쟁으로 승화시킵시다.

◎추모글

【시】

"동지여 부활하소서" 중에서
원진레이온 노동자

열명의 사망 이백여명의 직업병 환자의 분노
그 속에 그대 설움 살아 숨쉬었습니다.
집회 도중 김장수 박수일 동지가 하반신 마비로
쓰러져가고
직업병 인정을 은폐하려는 사측의 가증스러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떨쳐일어난

원진노동자 총파업
그 투쟁속에 그대 분노 화살되어
다시 살아났습니다.

노동부의 책임회피
사측의 직업병 인정 거부
그대 타오르는 햇불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원진레이온 젊은 노동자
똑같은 가슴속 지울수 없는 햇불로
그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원진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독재정권을 향해
피가슴 노여움으로
결연히 싸워나가리니
육신은 보내드리지만
김봉환 원진레이온 노동자여
그댄 영원히 원진레이온 가슴에
활활 타올라
매일매일 새로이 부활하소서

신 용 길 (당시 34세)

墓 부산 솔밭산 공원



- 1957년 5월 7일 서울 출생
- 1982년 부산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졸업
- 1988년 부교협 문화부장
- 1989년 7월 전교조 부산지부 결성식에서 축시를 낭송했다는 이유로 구덕고에서 파면
- 1989년 8월 출근 투쟁을 하던 중 경찰에 연행. 감옥에서 단식투쟁을 하다가 발병한 위궤양으로 병보석
- 1990년 1월 전교조 부산지부 교과위원장
- 1991년 3월 9일 동아대 부속 병원에서 위암으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신용길 동지는 89년 7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가입, '1989년 한국 여름 그리고 교육 대학살' 등을 발표하는 등 교육 민주화에 앞장서오다가, 그해 8월 전교조 부산지부 결성식때 자작 축시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구덕고에서 파면되었다.

그리고 그해 8월25일 출근투쟁 중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데 항의, 단식농성을 벌이다 부산 구치소로 넘겨진 이후 위궤양이 악화돼 결국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신 동지는 그 뒤, 날마다 부산지부 사무실에 출근하며 교육시집 발간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위의 통증을 견디지 못해 입원했으나, 이미 악화될대로 악화된 위암으로 결국 운명하였다.

신용길 동지는 운명 직전 "눈만이라도 남아 동지들이 복직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라는 유언과 함께 동아대 병원에 두 눈을 기증하였다. 그의 부릅뜬 두 눈은 앞을 못 보는 가난한 뱃사람과 또 한 여인에게 이어져 지금도 변혁과 싸움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동지를 생각하며

아이들과 부대끼며 교육모순 깨달아

신용길 선생님을 너무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신현수 선생님의 추모사에서 처럼 "살아남은 이들은 / 행사를 치루듯 장례를 치르고 /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 (<사람4> 중에서) 갈 수 없었다. 신용길 선생님이 남겨놓은 살아남은 자의 임무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조항미 선생님(32. 경남상고 교사)이 신용길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것은 81년 부산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등>시문학회에서였다. 당시 조 선생님은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신 선생님은 군 제대 후 4학년이었는데, 신 선생님이 대학원을 마친 후인 84년 조 선생님은 연산중학교로, 신 선생님은 주례여중으로 각각 발령받게 되었다. 이후 조 선생님은 부산전 여상을 거쳐 지금의 경남상고로, 신선생님은 구덕고로 부임하게 되고, 86년 두사람은 결혼하였다.

이후 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신 선생님은 교육문제가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나름대로 자신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생활하던 선생님은 전교조 부산지부 결성식에서 축시를 낭송했다는 이유로 해직되는 아픔을 당하셨다. 이에 출근 투쟁으로 맞섰던 선생님은 경찰에 연행되어 구속당하셨다. 구속되었다는 보도에도 놀라지 않았던 조 선생님이 정말 놀랐던

것은 신 선생님이 병보석으로 풀려나왔다는 것이었다. 90년 11월 부산위생병원에서 위암진단을 받은 이후 고신의료원, 광주의료원을 거쳐 '91년 3월9일 동아대 부속병원에서 임종하기까지 조선생님은 "삶의 동반자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자신이 죄스럽고 한스러웠다고 했다. <차라리 죽음이 두려운 것이다 / 우리의 죽음 뒤에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자 / /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 우리와 같은 슬픈 역사를 살아서는 안된다. / 아이들의 잠든 이마에 입맞추듯 / 우리는 이 고난의 세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리 -부직에의 꿈>. 신용길선생님의 시 앞에서 우리는 숙연함을 느낀다. 고난의 세월을 사랑하며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한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신문기사 중에서>

◎추모글

신용길 동지!

나를 과격하게 만든 이 역사적인 사건을 평생 잊지 않으리라 신 동지의 시의 구절처럼 우리도 잊을 수 없습니다.

1989년 한국 여름 교육대학살을, 운몽 활활 불태우며 투쟁하던 신 동지의 생전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부직에의 꿈을 키우며 신 동지가 적은 시역시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야 눈물짓지 마라/생활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차라리 죽음이 두려운 것이다/우리의 죽음 뒤에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끝내 갖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신동지가 쓴 시처럼 투쟁의 불꽃으로 살아난 신 동지.

신 동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신 동지 제자들의 가슴에, 여기에 모인 동지들의 가슴에, 아니 신 동지의 기록하고 송고한 정신을 아는 세상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제자들, 동지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신용길 동지!

우리 산자들은 당신이 이승에 남긴 두 눈에 전교조합법성 쟁취의 그날, 참교육이 실현된 세상을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그때 신 동지는 해방된 이땅의 푸른 하늘에서 청청하게 살아나 이승의 우리와 함께 마침내 목놓아 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길 동지!

그날을 약속하며 이제 우리는 울고 있습니다. 동지를 보내는 슬픔에, 신 동지를 죽음으로 몰고간 저들에 대한 치명리는 분노에, 억울함에 우리는 울고 있습니다.

우리의 울음이 기쁨의 울음이 되어 신 동지가 비로소 편안히 잠들 그날을 위해, 살아남은 우리도 각오하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신용길 동지! 부디 편안히 쉬십시오. 이제 마지막 가는 길. 신 동지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불러드립니다. 우리 모두 슬픔과 분노와 투쟁의 각오로 신동지 당신의 이름 목놓아 불러드립니다.

신용길 동지!

신용길 동지!

박 창 수 (당시 33세)



- 1958년 7월 28일 부산에서 출생
- 1979년 2월 부산 기계공고 졸업
- 1981년 5월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배관공으로 입사
- 1990년 7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당선, 부총연 부의장
- 1991년 2월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 1991년 5월 4일 의문의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에 입원
- 1991년 5월 6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 동지의 삶과 죽음

87년부터 노동운동에 헌신하던 박창수 동지는 28년 동안의 어용노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90년 7월 한진중공업에 민주노조를 탄생시키며, 전노협과 대기업 노조 연대회의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해왔다. 동지는 대우조선의 파업 관제로 긴급 소집된 대기업 노조연대회의에 참석했다가 제3차 개입금지과 집시법 위반으로 91년 2월초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동지는 임기중에도 안기부 직원으로부터 끊임없이 전노협 탈퇴를 종용당하였으며, 안양구치소 수감중에도 신원미상의 몇명과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며, 계속적으로 안기부의 압력을 받아왔으며 5월4일 의문의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에 입원하였고, 5월6일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동지의 죽음에 대해 정부는 비관자살이라고 발표했지만 자살할 사람이 링겔병을 7층 옥상까지 가지고 간 것과 병원전체의 창문과 옥상으로 통하는 문은 병원측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쇠창살과 열쇠로 잠겨놓은 상태를 볼 때 도저히 자살이라고 볼 수 없었다.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을 당시 안기부 요원과 계속적으로 접촉을 가졌고 의문사 당일 저녁에 신원미상의 젊은 과청년이 병실을 방문한 사실과 안기부 직원이 전화를 통해 계속적으로 박창수 동지와 통화를 부탁해온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전노협 탈퇴를 종용해 오던 안기부에 의해 살해된 것이 분명했다.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 병원에 백골단을 투입해 영안실 벽을 깨부수고 강제로 시신을 탈취해 강제부검을 실시했을

墓 부산 솔밭산 공원 묘역

뿐만 아니라 부검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다.

박창수 동지가 계속되는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으로까지 사수한 전노협의 깃발은 이제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의 정신으로 살아숨쉬고 있다.

◎ 유고글

【편지】

조합원 여러분!

이땅에 진정한 산업평화를 앞당기고 땀흘리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망치소리 우렁찬 생산의 현장에서 조합원 여러분을 뵈지도 어언 두달이 지났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생존이 달려있는 임금인상과 단협에 주력해야 할 시점에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게 되어, 진정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합원 여러분과 많은 노동형제들의 염려 덕분에 고독한 감방생활이지만,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규칙적인 생활로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으며, 조합원의 대사인 임금교섭과 항상 고생하시는 조합원 여러분을 생각하면 더욱 더 힘이 솟구칩니다. 지금까지 올해 임투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많은 노동형제들의 구속이 줄을 잇고 있으며, 갈수록 탄압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면회 온 간부들을 통하여 계속 소식을 접하고, 진정

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잘하여 주셨고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저력을 발휘하는 조합원 여러분을 생각하며, 직무대행과 대의원간부들을 중심으로 의연하게 단결하여, 좋은 성과를 쟁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도 비록 몸은 먼곳에 간혀 있지만, 조합원에게 득이되고 노동자를 위한 길이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한다는 결의로, 마음은 항상 부산의 현장에 함께 있다 생각하고 조합원의 가정에 늘 행운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며,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 규정상 이만 줄입니다. 몸건강 하십시오.

1991. 4. 10. 서울구치소에서 위원장 박창수 드림

【동지의 글】

노동운동에 임하는 나의 철학

인간은 누구나 의, 식, 주 해결을 전제로 하여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마음속에 잠재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변혁, 발전되어 왔으며, 지금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제각기 주어진 입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우리네 인간에게는 주어진 입장의 차이로 인하여 상대적 욕구 충족을 위한 갈등이 내재하며, 때로는 싸움이 일어난다. 자본가는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창출을 위하여 노동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압과 착취로서 부려 왔으며, 노동자는 가진 것 없고, 힘없다보니 못되고 당하기만 하다가 쌓인 불만이 폭발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깃발아래 뭉쳐서 투쟁하고 있다.

.....

오허려 급성장한 소수의 독점재벌 및 그와 연관된 무리들, 부도덕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축적한 불로소득과 과소비 등으로 대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빈곤감은 엄청나게 불어났다.

한마디로 "속았다"는 것이다. 세상에 바보아닌 다음에야 속은 것을 알고 참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더이상 속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현혹하기 위하여 또다시 과거의 "80년대는 대망의 100억불 수출과 1,000불 소득, 마이카시대"와 비슷한 "뺑을 더욱 부풀려서 나누어 먹자", 내지는 "사과를 더욱 크게 만들어서

나누자"는 등의 슬로건을 내걸지만 별로 믿고 싶지 않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요즘사람들은 약아서 말로 "민어주세요" 해 가지고는 안통한다. 최소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87년 7, 8월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이 다수 설립되어 노동자 의식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한가지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국가권력이 자본가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위 경제의 케인즈 이론상 성장과 분배가 함께 하는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할텐데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인 이승윤씨는 케인즈 이론을 굉장히 부인하고, 성장 일변도의 인물로 소문이 나 있으며, 현재는 소위 자본가를 위한 정책을 펴면서 다수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그에 딸린 식솔들의 생존권마저 공권력과 테러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는 무얼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는가? - (생상성 향상)

정치하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무슨 생각이 담겨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잡아 졌다 해서 해결하려 든다면 역사의 교훈으로 미루어 큰 혼란을 면치 못할 것인데 아무리 정치적으로 몇 사람의 기득권과 욕구충족도 좋지만 대다수의 국민생존권을 담보로한 정책을 펴는 것이 한마디로 너무 무식한 생각이다. 우리 노동자는 이제 87년 이전의 목적 의식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조합의 깃발 아래 생각하고 사고하는 의식적으로 무장된 노동자이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본과 권력이 결탁한 반민주적인 소수를 위한 정책을 과감히 거부하고 또한 거기에 빌붙은 어용노동도 박살내고 이땅의 진정한 민주주의, 다수에 의한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창수 동지의 노동운동에 대한 글〉

◎ 의문점

부상 경위에 관한 관계당국의 발표가 갈광질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창수 동지의 부상경위에 대해 당국은 갈광질평한다 "여러명이 공놀이들 하다가 다쳤다"고 했다. 검찰은 1차 "혼자서 공놀이들 하다가 다쳤다"고 했다. 그러다가 중간 수사발표에서 "재소자 69명과 함께 운동을 마치고 방으

로 돌아가다가 대열 끝에서 7-8 m달려가서 시멘트 모서리에 이마를 박아 자해했다고 했다.

* 왜 자해 했는가?

검찰은 험거운 구치소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 동지는 병원에 있을때 부인과 노조간부에게 이 시대의 노동자가 탄압당하고 있는데 구치소에 그냥 있을 수 없어 죽음을 무릎쓰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요지의 발언을 몇차례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박 동지는 위축감을 느끼는 듯 밖으로 얘기 할때는 배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하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무슨 이유일까?

* 같은 방의 수감자는 누구인가?

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방에는 3명이 있었다. 1명은 인신매매 용의자, 1명은 사기용의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3의 인물에 대해서는 박 동지 조차 말을 할 수 없다고 밝혀질 꺼려했다.

그는 누구이며, 왜 구치소 측은 같이있던 수감자와 조사단의 면담을 가로 막는가?

* 왜 밥을 먹지 못했는가?

고인은 부인에게 안양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며칠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박 동지는 단식농성을 하지 않았던 것은 확인되었다.

고인은 밥을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왜 먹지 못했던 것일까?

* 합의를 맺고 황급히 부검한 이유는?

검찰은 유족과 대책위에 양측합의하에 부검하기로 해놓고 불과 17시간만에 약속을 어기고 황급하게 시신을 탈취 부검했다.

무슨 말 못할 급한 사정이 있었서 시신을 급하게 처리했는지?

* 감시 중이던 교도관 한명은 어디에?

감시중에 교도관 2명이 동시에 졸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박동지 사망 시간을 전후하여서는 현장 주위에 1명의 교도관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부검 소견서를 왜 공개하지 않고 있는가?

검찰은 사인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있다. 더구나 5월6일 06시경 사망 현장에서 검사는 김형태 변호사에게 현장을 찍은 사진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서 아직까지 안주고 있다. 관계 당국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시신은 20m 상공에서 추락했다

검찰은 중간발표에서 발목에 심한 골절상이 있다고 해서 투신자살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20m 높이에서 추락해 발이 먼저 땅에 닿았다고 해도 2차 충격으로 머리 등에 외상을 입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발목외에 뚜렷한 외상이 없고, 죽은 모습이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였으며 링게르병 조각이 지름 1.5m 안에 흩어져 있던 점은 7층 옥상에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점,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링게르병을 팔에 끼운 채 옥상까지 올라가 투신한다는 점도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게 한다.

* 계속 등장하는 제3의 인물은 누구인가?

박동지 병원에 입원 중일때 신원불명의 사나이와 두차례 통화를 했다. 사회와 철저히 격리되는 구치소의 행정망을 자유자재로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들은 누구인가?

* 안기부와 연락담당 장세군의 행방은?

5월10일 장세군씨가 행방불명 되었다. 장세군씨는 박 동지의 죽음을 전후하여 안기부와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왜 장세군씨는 나타나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 1969년 전남 송주 출생
- 1981년 순천 중앙초등학교 5년 중퇴
- 1983년 노동일 시작
- 1989년 성남피혁 근무, 민주화운동 직장 청년연합 회원으로 활동
- 1991년 5월 10일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전남대에서 분신
- 1991년 5월 12일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윤용하 동지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어려서부터 중국집 배달원, 가방공장 공원 등의 노동일을 하였다. 89년 초 대학출신 현장활동가를 만나면서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해 인식하게 된 동지는, 서울 민주화직장청년연합의 품물감습반에 등록해 활동하기에 이른다.

윤 동지는 평소에 망월동 참배를 원했으며, 91년 5월에는 5월9일 국민대회에 맞춰 광주로 갔고, 5월9일 분신해서 투병중이던 박승희 동지에게 문병을 가기도 했다.

91년 5월10일 조국의 참된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노태우 정권의 사냥감이 되고 만다는 유서를 남기고, 윤용하 동지는 분신했다. 분신 이틀 후인 12일, 동지는 "노동해방을 위해 분신을 생각했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운명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젖어 나약하지 않으렵니다. 좌절에 빠져 눈물을 보이지 않으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동생이 그토록 염원했던 노동해방 세상을 열어가는 투쟁의 한길에 우뚝 서겠습니다. 그리하여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한미디의 사과를 커녕 불순 배후세력을 운운하면서 또 다른 죽음을 부르는 저 간악한 사악의 화신, 독재의 무리들에게 오늘의 이 아픔과 고통, 슬픔과 분노까지 모두 모아 남김없이 되돌려 주렵니다.

그것만이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을 조국의 영원한 아들로 다시 부활시키는 길이라 굳게 믿습니다.

1991년 6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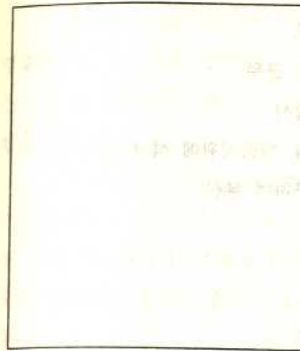
고 윤용하의 가족을 대표하여 못한 형 용범 올림

◎ 유고글

【유서】

현 정권은 김기설 열사의 분신을 그 책임을 이룬바 운동권 세력에게 돌리려 한다. 누가 분신을 배후조종한단 말인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 누가 버리라고 한단 말인가. 그렇다. 바로 살인을 만행하는 현정권 노태우,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죽음으로 총칼 휘둘러 온 현 정권 뿐이다. 민주화를 외쳐대는 우리 청년학우여, 우리는 그렇게 당했다.

대학생, 노동자, 농민 아니 우리의 4천만 아니 7천만 겨레를 죽였다. 우리는 자본가들에게 끝까지 싸우리라. 노태우는 국민앞에 사과하고 퇴진하라. 강경대를 살려내라.



- 1991년 6월 8일 인천 삼미기공에서 임금인상 보고대회 도중 분신
- 1991년 6월 15일 한강성심병원에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91년 6월8일 오전 9시30분 경 (주)삼미기공 노동조합 홍보부장 이진희 동지가 임금인상 보고대회 도중 노동조합측의 타결안에 분노하여 분신, 90%이상의 화상을 입고 분신 8일만인 15일 오전 9시경 한강성심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4월 11일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사측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타결짓고 보고를 하자, 노동조합 간부로서 집행부의 어용성에 분노하고 있던 이진희 동지가 결국 분신을 감행한 것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분노를 산 것은 회사측의 태도이다. 병원에 찾아와 가족들에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회사에 분신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조용히 수습하자"고 회유하면서 교인의 뜻을 왜곡하기에 급급했다.

석광수 (당시 30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1961년	강원도 삼척군 출생
1982년	강국택시에서 3년간 근무
1986년	인천 공성교통에 입사
1991년 6월 14일	지도부 연행에 항의, 차량시위에 적극 참가.
1991년 6월 15일	지도부 석방을 요구하며 분신
1991년 6월 24일	10시 28분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6월 14일 회사측의 성실한 교섭 자세를 촉구하기 위한 차량시위 도중에 경찰의 폭력적인 조합원 연행에 항의하여 6월 15일 총파업 돌입과 함께 공권력의 폭력진압과 무자비한 강제 연행에 항의하던 석광수 동지는 사업주의 비열하고, 무책임한 임금협상에 온몸으로 항거하다 분신. 그는 가족과 동지들의 안타까운 염원을 뒤로하고 24일 운명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사태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이사장이 잠적하였다. 이에 가족들의 보름이 넘는 농성과 노조 집행부의 노력으로 보상금, 장례비, 치료비를 받아내고 장례를 치루었다.

◎ 동지를 생각하며

석광수 동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석광수 동지는 1961년생으로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추동리에서 출생하여, 77년 세일포장에서 13만원의 임금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20살때 인천에 상경하여 계산동 주차장에 취직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자취생활을 시작하였다. 82년 부평 한시택시인 강국택시에 입사, 3년간 근무하다가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친구를 위해 그 자리를 물려주고 강국택시를 퇴사했다. 86년 3월 공성교통에 입사하여 거의 만근을 할 만큼 성실히 근무생활을 하였고, 계산동 노동당 수녀원에서 벌이고 있는 장애자 돕기 후원회원

으로 없는 살림에 매달 3만원씩 후원회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석광수 동지는 친구소개로 91년 4월 6일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10만원짜리 사글세방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91년 3월 노조 대의원으로 피선되어 현 박용주 조합장을 도와 모든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석 동지는 6월 14일 차량시위 당시 경찰들의 폭력적인 차량견인에 항의하여 선두에 서서 싸웠다. 지도부 및 조합원 동지 210여명이 연행된 이후 석광수동지는 회사로 돌아와 분신 4시간전 경에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한다.

내가 모범기사라, 민자당 물을 좀 먹었지만 이.X.X 들! 해도 너무 한다. 우리가 차를 세워두어야 하는거야? 임금교섭 도중에 지부장을 끌고 가고 이견 말도 안되는 공권력개입이다. 2시가 넘어 이웃회사 차들이 몇 대 들어오자 석광수 동지는 차를 세워 놓고 끝까지 싸워야한다. "혼자만 벌먹고 살려고 하면 하루 갈 것이 일주일 간다"며 열변을 토하기도 하였다. 밤새 북을 치며 노동가를 부르다가 6시 20분경 분신한 것이다.

동지의 성급한 행동을 막지 못했던 우리들이 한스럽다. 석광수 동지의 죽음이 조직의 단결력 강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모든 동지들은 단호하게 투쟁하여 나아갑시다.

◎ 추모글

【성명서】

故 석광수 열사의 의로운 죽음을 애도하며
우리는 석광수 열사가 32살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결혼한 지 두달만에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남겨두고 분신한 지 열흘만인, 6월 24일 오전 운명을 달리함에 비통함을 금할 길 없다.

터져나오는 울분을 깨물며, 우리는 석광수 열사의 죽음을 지금도 택시지부 교섭위원 10여명을 고발하는 작태를 보인 인천택시사업조합의 파렴치한 교섭자세와 경찰당국의 무자비한 폭력이 불러 일으킨 타살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91년 봄 인천, 서울, 광주, 대전, 성남, 여수, 목포 지역의 택시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벌이고, 자신의 목숨을 끊어 항거하는 극한 상황은 결코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며, 어느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한 것도 아니다. 짓밟힐 대로 짓밟히고,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전국 13만 택시 노동자들의 한맺힌 절규가 각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고, "집권 여당인 민자당이 설마 그렇게까지 나올줄 몰랐다"며 석광수 열사 또한 분신하며 절규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둔다.

자신의 탐욕만을 찾으려고 혈안이 된 사업주들과, 이를 비호해 온 노동부와 관계당국이 석광수 열사의 죽음에 명백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석광수 열사의 죽음을 결코 잊고 싶지 않을 것이다.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어야할 젊은 노동자를

분신이라는 극한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밖에 없도록, 벼랑끝으로 내몬 참담한 현실을 결코 후대에는 물려주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책임임을 다짐한다.

석광수 열사의 영정 앞에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며, 또한 투쟁의지를 가다듬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인천택시사업조합은 지부간부에 대한 고발을 즉시 취하하고, '91년 임금교섭에 성실히 응하여, 인천택시지부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2. 인천택시사업조합은 석광수열사의 유족과 전국 13만 택시노동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유족에 대한 보상을 즉시 이행하라!
3. 경찰당국은 무자비한 연행, 폭력, 구속사태를 자행한 경찰 책임자를 문책하고 공개 사죄하라!
4. 노동부, 교통부, 시청등 관계당국은 벼랑 끝에 내몰린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조건이 전면 관철될 때까지,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사업조합과 관계당국이 여전히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석광수 열사와 생사를 함께 할 것이다.

1991. 6. 24.

故석광수열사 장례대책위원회 전택노련 인천시지부

유재관 (당시 29세)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서울 한성고등학교 졸업
1981년	고려대학교 사학과 입학
1983년	학내시위 주도로 장기간 수배
1984년	학원 자율화 조치로 재입학
1985년	고려대 졸업
1987년	인천 신흥목재(우아미 가구)에서 활동 중 해고
1989년	인천 목재 노동자회 실무자로 활동
1990년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회원으로 활동, 남부 노동반 반장 '인사연' 제8차 정기총회 준비위원
1991년 6월 27일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광역의회 선거가 민자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민중운동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이 자행되던 시기에 인천 동서식품에 1,000여명의 경찰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고, 안산의 동영 알루미늄에는 400여명의 경찰을 투입하여 강제해산시켰다. 또한 26일 인하대 총학생회장이 교내에서 불법적으로 강제연행되었고, 27일에는 인천대에 160여명의 백골단이 투입되어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강제연행하던 중 학생들에게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시간에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에서 정기총회를 준비하던 회원들은 새벽 1시50분경 인천대 공권력 투입소식을 접하고, '인사연'도 침탈당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급히 사무실을 나오다가 유재관 동지가 3층 유리창을 열고 뛰어내렸으나 실족하여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동지여!
수십만이 하나되어
뜨겁게 외치던 함성
그 열기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거세게 불어닥친 칼바람은
너를 앓아가 버리고 말았구나

慕 용인 천주교 묘지

허리질린 조국은
아직도
너의 뜨거운 가슴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들의 피가 서린 일터는
너의 불끈 쥔 주먹을 부르고 있는데
너 어찌 눈을 감을 수 있는가
너 어찌 떠날 수 있는가

치떨리는 분노
터질듯한 서글픔은
차라리 눈물마저 앓아갔다

동지여!
자주 민주 통일의 새세상
노동자 해방의 그날에
우리 뜨거운 울음으로
너를 부둥켜 안으리니

◎ 유고글

산이라면 넘어주자
물이라면 건너주자
넘고, 건너 노동해방의
새세상을 맞이하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죽어가는 것은
그 목적이 승고하기 때문이다.

◎ 추모글

【동지를 그리며】

유재관 동지는...

-구로공단에서 시작한 노동운동

1984년 학원자율화조치로 수배해제되어 학회건설에 노력하던 유재관 동지는 사회변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역량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젊은 지식인으로써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노동현장에 뛰어들었다. 이 당시 유재관 동지는 구로지역으로 가게 되고, 철산리 근처에 방을 얻어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다. 영세공장에 나가면서 용접등 기술을 배웠고, 자취방에서 밤새 유인물을 만들어 새벽에 주변 공단과 노동자 주거지역에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운명당시

1991년 6월, 사상 유례없는 금권, 관권선거로 민자당이 입증한 광역선거 이후 노태우정권은 폭압적인 공안통치를 노골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다. 1991년 6월27일 01시경 인사연에서 정기총회를 준비하던 유재관 동지는 새벽 2시경 "인천대에 경찰력이 투입되었다. 민청도 칠 것 같다. 인사연도 빨리 피하라"는 다급한 전화가 오자, 각종 자료를 챙겨 3층에서 8m아래로 뛰어내렸으나 숨졌다.

인사연 관계자들은 사고 당일 새벽 유재관 동지가 정기총회 준비차 각종 자료를 갖고 있어 비밀을 보호하느라 급한 마음에 뛰어내렸을 것이라며 그의 책임감을 높이 사면서도 어처구니 없어했다.(1991년 6월30일자 한국일보)고 한다.

-그리고...

목재 업종은 수 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톱밥가루 철가루를 뒤집어 써야하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엄청난 노동강도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저임금의 족쇄를 벗어 던지지 못하는 참으로 눈물겨운 곳이었다.

너무나도 어용의 뿌리가 깊은 대공장들과 스스로의 조직도 없이 일상적인 억압과 착취 속에 방치된 중소기업장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수 많은 목재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운동의 불모지였다.

이렇게 척박한 민주노조 운동의 불모지에서 유재관 동지의 투쟁은 실로 목재 노동자들의 가슴에 새로운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이었다.

87년 우아미 가구에서의 투쟁과 이후 목재 노동자회에서의 활동은 목재노동자들이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를 아낌없이 보여준 참된 모범이었다.

글로벌리아, 세화, 세풍, 영본에서 목재의 중심노조들이 자본과 정권의 야수적 탄압 앞에 쓰러져 갈 때에도, 그래서 다들 목재는 너무 어려운 곳이라고 우리의 근본자체를 회의할 때도 유재관 동지는 흔들림 없이 중심을 틀어지고 목재 노동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왔고 아직도 함께 걸어오고 있다. 목재 업종의 조건은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서 빛나는 성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곳일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할 일이 많아서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할 유재관 동지!

항상 노동운동과 민주화에 내 한몫숨 던지겠다고 말해왔던 유재관 동지!

유재관에서 영재로 다시 강성호로 살면서 즐겁게 노동자로 살기를 원했고, 노동자로서 성숙했고 기꺼이 자주·민주·통일·노동해방 전선에서 뼈를 묻은 유재관 동지!

유재관 동지가 우리에게 남겨준 모습은 우리의 자주·민주·통일의 길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남을 것이다.

김 처 칠 (당시 35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1956년 2월 강원도 인제군 출생
 1976년 중앙고등학교 졸업
 1982년 화창운수 입사
 1985년 합동물산 입사
 1990년 합동물산 노동조합장 당선
 1991년 5월 조합장 재선
 1991년 8월 22일 12시 30분경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90년 8월부터 시작된 합동물산 노동조합의 지·도급제 철폐 투쟁은, 1년여의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었다. 악덕 기업주의 파렴치한 부당노동 행위에 맞서 굳은 결의와 동지애로 노조를 이끌던 김처칠 동지는, 91년 7월10일 차고지가 없어 성산대교로 그리고 장마로 다시 양화대교 다리 밑으로 이전하면서 택시 노동자의 권익과 생존권을 위해 하루 세끼 밥도 먹지 못한 채 한달여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선봉에서 온몸 아끼지 않고 투쟁하였다. 조합원들이 축구를 하다 한강에 공을 빠뜨리자 때마침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던 동지가 공을 건지겠다고 들어갔으나, 투쟁으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관계로 중간에 탈진하여 실종되어 행주대교 근처에서 시신을 인양하였다.

◎ 추모글

【당시 유인물】

안녕하십니까?

택시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오신 각 노동조합의 조합장님 이하 간부님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뜨거운 동지적 연대감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합동물산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슬한 어려움과 악조건 속에서도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놓고 1년여의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합동물산은 90년 1월 강태권씨가 회사를 인수한 후 차량 26대를 지입제로 불법 판매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지·도급제 철폐를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쟁이 장기화되자 회사는 이치규를 해결사로 불러들여 노동자들에게 온갖 폭언 폭행을 서슴지 않는 등 한층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싸움의 과정에서 지입차량 26대는 시 운수과로부터 사업면허를 취소당했고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등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합동물산 노동조합의 조합장 '김처칠' 동지는 우리 택시 노동자의 최저 생존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불철주에 노력해 오셨고 작년(1990년) 8월 7일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선두에서 사수시다, 1991년 8월22일 투쟁의 현장에서 산화하신 우리들의 자랑스런 동지입니다.

저희 합동물산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조합장님을 잃은 슬픔 속에만 잠겨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처칠 동지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꼭 찾겠다는 사명감과 거룩하고 존귀한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자책감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시】

어머니

땅거미 지던 양화대교 밑
 질푸른 한강물
 넋놓고 바라보시던 어머니
 처칠아! 처칠아!
 묵넋던 당신의 눈에 어느덧
 진한 모정 묻어나고 있었지요.

복에서 내려온 남편 따라
 당신은
 40년 반공주의자 셧지요
 아들놈 회사에서 쫓겨
 140여일 동안 파업현장 지킬 때
 내는 자식이라 하셨지요

쌀물에 밀리고 쓸려
 통통불어 겹게 탄 아들놈 시신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시다
 알아서 하거라 알아서 하거라
 눈물만 흘리시던 어머니

세상천지에 불효 막심한 아들놈 묻으며
 어머니 당신은
 평생 간직해온 반공주의도
 사장이 그저 왕이라는 생각도
 함께 묻었다며
 가슴 깊이 박힌 대못하나
 빼들고 있었지요.

울지 마세요 어머니
 곡예운전에 절로 미쳐가야하는 운짱들
 허한 가슴 올려다 본 밤하늘
 반짝이는 별하나로 웃고 있잖아요.

〈동지의 어머니께 바치는 시 중에서〉

◎ 유고글

【일기】

철조망

그것은 법이며 질서이다.
 규범이며 도덕이며 훈계이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억압이다.
 겹겹이 철조망을 둘러치고
 지배와 복종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조망을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 쓰러진 얼굴 위에도 침을 뱉는다.

그러나 철조망을 넘는 것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떤 법률과 질서와 도덕과 훈계로도
 가로막을 수 없는
 자신의 삶과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철조망 앞에 결박당하여 의식이 마비되기를 거부한
 인간의 생명력
 인간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1969년 전북 장수 출생
 1982년 2월 부산 아이 초등학교 졸업
 보세공장 취업으로 노동자 생활 시작함
 1985년 공장생활을 하면서 동주여중 야간졸업
 1990년 (주)대봉에서 미싱공으로 근무
 1991년 12월 6일(주)대봉 3층 옥상에서 살인적인 노동문제에 항거하여 투신

◎ 동지의 삶과 죽음

지역 노동자들의 독서모임인 '도서원 광장'에 나가면서 노동자의 의식에 눈을 뗀, 자랑스런 노동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동지는 신발업체인 대봉에서 91년 11월부터 어용노조의 협조 속에서 30분 일 더하기 운동, 구사운동과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노동통제강화에 맞서 공장 옥상에서 투신,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다음은 팔뚝에 쓴 유서 전문이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나를 이 차가운 땅에 묻지 않고 그대들 가슴 속에 묻어주소. 그때만이 우리는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으리.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말라.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미경이다."

◎ 동지를 생각하며

평소 세심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주위 동료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성실하고 깨끗한 권미경 동지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 밤이면 공부하고 낮에는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애쓰다 불량이라도 하나 내면 거침없이 쏟아지는 관리자들의 폭언을,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가슴여린 스물세살의 여성노동자였다. 그 가슴여린 스물세살의 여성노동자가 이제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우리앞에 누워있는 것이다.

권미경 동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공장에 취업하여 생활하면서도 야간중학교까지 다니며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완구공장에 다니시는 홀어머니와 노동일을 하는 오빠, 여동생 둘인 어려운 집안의 장녀로서 깨끗하게 살아

왔던 것이다. 어머니는 "미경이는 절대로 자살할 아이가 아니다"라면서 경찰의 자살추정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였다. 죽은 당일 아침에도 평일과 아무 다름없이 밝은 모습으로 출근하였고 죽기 직전에 썼던 12월 5일자의 일기에도 "바로 내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하고자 할 때만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쓰여져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권미경 동지가 높이 30미터가 되는 작업장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렸건 그렇지 않건간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이 사회가 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모순된 사회를 유지하고 강화하면서 끝내는 이 사회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현 정부와 자본가 계급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무노동자 권미경 동지의 꽃다운 청춘의 황금기, 그 가장 아름다워야 할 10여년의 세월동안을 피땀 흘린 대가가 '지금 현재의 경제위기는 모두 노동자 때문'이라며 '원가절감' '결근방지' '30분 더 일하기' 등으로 되돌려지는 이 모순된 현실이 초래한 명백한 타살이며, 또한 인간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여성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강요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 유고글

【일기1】

1991.10.11 - 지치고 피곤하고 서러운 금요일저녁 노동강도가 갈수록 더 심해져 간다.

신발산업 해외 이전까지 들먹여 가며 아무것도 모르는 내 동료들을 그들은 희롱하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할 뚜렷한 설명조차 못해주고있다. 나조차 뭐가 뭘지 잘 알지 못하기에.

요즘은 몸이 정신을 전혀 뒷받침 해주지 못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피로 같은 걸 별로 느끼지 못했었는데, 요즘은 몸이 쭈시고 저리고, 하기가 사람이 일을 그렇게 죽어라고 하는데 멀쩡하면 어디 사람이냐 기계지.

억울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억눌리며 살아야 하는 걸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도대체 내 동료들은 얼마만큼 더 밟혀야 멀치고 일어설 것인가?

세상이 싫고 나 자신이 싫다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없을 만큼 미쳐 버렸음 좋겠다. 아니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

【일기2】

7. 1. 월 공장 땡땡이

어제 박창수 위원장님의 정례를 지켜보는 내 마음은 놀람, 슬픔, 억울함과 분노가 뒤범벅이었다. 우리 노동자들이 뚝뚝 뭉쳐 단결해서 과업에 들어가 가열찬 투쟁만 한다면 모든 사소한 일까지도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내겐 실로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과연 지금의 노동현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작은 요구조건 세가지조차 투쟁으로 쟁취하지 못한다는 말인가하는 의문속에서의 이틀.....

그 세가지 조건은

1. 유가족에 대해 보상하라
2. 무노동 무임금을 철폐하라
3. 한진중공업 노조간부들 고소고발을 취하라

는 너무나 당연한, 세살짜리 꼬마들조차 알 수 있는 조건인데 말이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에 나중에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자본가놈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하고 더러운 인간들인지 분명히 알았다. 개자식들 내 비록 작고 여린 가슴으로 너희들과 맞서려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너희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우리 노동자생명을 파리 묵슴보다 더 못하게 여기면서 십원 짜리 하나라도 더 쟁기려 드는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돈, 그 더러운 돈도 모두 태워버릴 것이다.

기다려라 이 개자식들아!

박창수위원장은 그 차디찬 땅속에 묻은 것이 아니고 내 뜨거운 가슴 속에 묻었다. 아니 우리 전 노동자 가슴에 깊이 깊이 살아계실 것이다. 자본가놈들 내 아버지의, 내 어머니의 피맺힌 한을 너희 아가리에 처 넣어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아라!

◎ 추모글

【시】

동지에게 -고무노동자 권미경 동지에게 申에서
장도서원 송 종 순

먼길 떠나신 동지여
제비꽃빛 한복 새색시마냥 차려입고
꽃신 신고 외로이 떠나신 그 길
그 겨울이 가고 다시
우리는 겨울 앞에 서 있습니다.

대봉 신발 공장 옥상에서
꽃잎처럼 당신 몸을 던졌다는
전선으로 들려오는 캄캄한 소리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도 함박이 웃으며
우리는 함께였었는데

"그대들의 더운 가슴에 나를 묻어주소
공순이가 아니라 내 이름은 미경이다"
마지막 유언속에 숨어 넘치는
당신의 분노를 가슴 일렁이며 새깁니다

당신 떠나신 후로도
쉬이 봄은 오지 않고
우리는 쓰러져 울기도 하지만
광폭한 겨울일수록 봄의 꿈을 믿으며
땅속 깊이 꿈을 심어 두겠습니다

임희진 (당시 32세)

墓 穴 장



- 1960년 서울 출생
- 1980년 세종대 국문과 입학
- 1985년 광진중학교에 부임
- 1989년 신암중 부임
전교조 분회결성 주도, 해임
- 1990년 강남강동 지회 교육선전부 활동
- 1992년 해직 3년만에 암으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임희진 동지는 89년 서울 신암 중학교에서 전교조 신암중학교 분회결성으로 해직되었다. 동지의 부모에게까지 압력을 가하며 전교조 탄압을 하는 비열한 정권에 맞서 해직 후 교육선전부 활동을 했다. 91년에 동지는 암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동지들과 조직을 걱정해 발병 사실을 숨기며 참교육을 위해 헌신했다.

임희진 동지는 무서운 병마와 끝내 혼자 싸우다가 92년 "전교조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서른 두 해의 생을 마감했다.

◎ 동지를 생각하며

우리 앞에 살아날 故 임희진 동지여!

동지와 우리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참교육을 위해 지금도 우리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음을 아십니까. 1만명의 현직교사들이 공개선언으로 교육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교육의 토대인 전교조 합법화와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찬 전국교사대회와 노동자대회로 참교육을 위한, 노동해방을 위한 투쟁의 의지들이 굳건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정말 평범하고 말없이 살다가 그대 뒤를 따라 굳은 의지와 흔들림없는 실천으로 남은 저희들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머지않아 동지와 더불어 이름없이 살아가는 모든 노동 형제들이 자유와 평등이 세상 상에서 함께 하리라는 신념을 가슴 깊이 새겨봅시다. 고개 숙여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고이 잠드소서.

◎ 추모글

【추모의 글】

선생님.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 주십시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선생님이 딴 세상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처럼 찾아간 지구모임에서 뜻밖에 그런 기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어 황급히 지구 선생님들과 대학병원 영안실을 달려 갔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서도 선생님이 딴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도저히 실감할 수 없어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곤 부모님밖에 안계신다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듣고서야 선생님이 얼마나 외롭게 병마와 싸우다가 가셨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병마와 싸우면서도 끝내 혼자서 버티시다 운명직전야 "전교조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광진중학교에서 2년을 넘게 함께 생활하면서도 선생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군요. 선생님의 인상은 언제나 말없이 조용한 모습으로만 떠오릅니다. 88년에 평교사회가, 그리고 동북부교사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교육민주화 바람이 불고 서명운동과 깃달기 등을 할 때에도 선생님은 언제나 말없이 조용히 따르셨지요. 그런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는 조용한 동조자라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학 직후에 선생님께서도 해직을 당하셨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직까지 각오하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었지요. 설치기 좋아하는 저도 해직생활이 너무

도 힘들고 괴로워 절망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닌데, 조용하신 선생님의 3년 세월이 얼마나 큰 괴로움과 절망이었을까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황량한 그 세월을 안고 선생님은 목숨을 노리는 또 하나의 무서운 적과 싸움을 해야만 했군요. 동료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선생님은 그 처절한 싸움을 혼자 감당하셨군요. 임종에 이르러서야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신 선생님...

작년에는 동생도 잃어 이제 부모님 두 분만 남으셨다는 소식. 그래서 무덤조차 없이 저 세상으로 가신다는 소식에 역장이 무너져내리는 느낌입니다. 엇저녁 선생님이

누워계신 영안실을 나온 뒤에 함께 온 선생님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실 때만 해도 실감나지 않았는데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서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직을 당하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텐데...

편안히 잠들 무덤조차 없을 임희진 선생님.

부디 구천을 이리저리 떠돌지 마시고 살아서 실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신 그 뜻과 마음을 우리 마음에 전해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마음속에 늘 살아주십시오.

김희선 선생님 (전 광진 중학교)